

2004學年度

碩士學位 請求論文

Dickson의 히브리서주석을 통한 개혁주의
성경해석의 원리 연구

A Study of the Principle of Reformed Biblical Hermeneutics through
『A Short EXPLANATION,
Of the Epistle of Paul to the Hebrewes』 of Dickson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牧會學科

尹大錫

Dickson의 히브리서주석을 통한 개혁주의
성경해석의 원리 연구

A Study of the Principle of Reformed Biblical Hermeneutics through
『A Short EXPLANATION,
Of the Epistle of Paul to the Hebrewes』 of Dickson

指導 류 호 영 教授

이 논문을 석사학위(M.Div)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2월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牧會學科

尹大錫

이 논문을 윤대석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04년 12월 9일

주심

한영미 Han

부심

申 鎭 曠 (Shin)

위원

이 은 설 Sem

위원

기 호 영 by

위원

감사의 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인데 신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느덧 또 하나의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뒤돌아 볼 때에 부족한 자에 대한 만세 전의 하나님의 깊으시고 선하신 작정과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의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지만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지도해 주신 류호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학문적인 소양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가르침까지 베풀어 주신 한성기 교수님과 땅 속 깊이 감추어진 보배와도 같은 귀한 개혁신학의 유산을 값없이 전수해 주신 김영규 교수님과 목회자로서의 귀한 모범을 보여 주시는 김성봉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약학회를 통해 계속적으로 신학의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는 조병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처음 논문을 쓰는데 좋은 아이디어와 자료를 제공해 주신 박기수 전도사님과 함께 많은 대화로 상호간의 유익을 주셨던 정재훈 전도사님을 비롯한 Servus Dei모임 전도사님들, 그리고 3학년 동료 전도사님들에게 지면을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더욱이 신대원 3년의 과정동안 변함없는 기도와 함께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용인중앙교회 곽기언 목사님과 곽승욱 목사님, 모든 성도님과 교정을 봐 준 황솔 자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신 포도원교회 김효제 목사님, 그리고 멀리 창원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김덕실 전도사님과 오요셉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무뎠던 장남을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아낌없는 사랑과 끊임 없는 기도로 마음껏 학업에 열중하도록 마음으로 늘 함께 해 주신 사랑하는 아버님과 어머님, 동생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그 기도와 사랑에 어긋나지 않도록 마음이 따뜻한 목회자로서 일평생의 생명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신실하게 전하고자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정도를 걸어가겠습니다.

2004년 12월 10일

윤대석

목 차

| | |
|--------------------------------------|----|
| I. 서론 | 1 |
| A. 문제제기 | 1 |
| B. 연구목적 | 3 |
| C. 연구방법 및 범위 | 4 |
| II. 본론 | 5 |
| A. Dickson에 관한 자료들 | 5 |
| 1. Dickson의 생애 및 저작 | 5 |
| 2. 사무엘 리더포드가 Dickson에게 보낸 편지 | 5 |
| B. Dickson의 히브리서주석 | 7 |
| 1. Dickson의 히브리서주석에 대한 설명 | 7 |
| 2. Dickson의 히브리서주석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 | 8 |
| 3. Dickson의 히브리서주석을 통한 성경해석 방법 | 9 |
| 3.1.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 | 9 |
| 3.2. 문법적 해석 | 12 |
| 3.2.1.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 12 |
| 3.2.2. 구절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 15 |
| 3.3. 신학적 주제들로서의 해석 | 25 |
| 3.3.1. 신론 중심으로 | 26 |
| 3.3.2. 기록론 중심으로 | 29 |

| | |
|--|-----------|
| 3.3.2.1.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 신성과 인성 | 30 |
| 3.3.2.2.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 비하의 신분 | 33 |
| 3.3.2.3.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 대제사장 | 35 |
| 3.3.3. 교회론 중심으로 | 41 |
| 3.3.3.1. 신구약 시대의 교회 개념 | 41 |
| 3.3.3.2. 교회의 보편성 | 43 |
| 3.3.3.3.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 44 |
| C. 개혁주의 성경해석의 원리 | 47 |
| 1. 칼빈의 저작에서 | 47 |
| 1.1. 기독교 강요에서 -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 47 |
| 1.2. 신약 주석에서 - 간결하고 용이한 방법론 | 50 |
| 1.2.1. 간결한 방법론 | 51 |
| 1.2.2. 용이한 방법론 | 52 |
|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 55 |
| 2.1.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 56 |
| 2.2. 성령의 조명을 전제로 하여 | 56 |
| 3. 평가 | 57 |
| | |
| Ⅲ. 결론 | 59 |
| | |
| 참고문헌 | 61 |

I. 서론

A. 문제제기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용어를 쓰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다. 그러나 그 용어에 하나님 나라적인 개념을 새로 부여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 용어의 개념 그대로 변동이 없이 쓰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따로 사전을 만들어서 주신 것은 아니고, 성경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하여 성경 가운데 있는 많은 도리를 우리가 읽고 보고 배우면서 그 가운데서 결국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가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어떤 직접적인 명령이 있으면 그 설명이 여러 가지의 형식 즉 설화, 비유, 역사 이야기 혹은 사례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고 공부해 나갈 때 비로써 “아, 우리들은 이만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구나”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차례 차례 잘 터득해서, 성경이 크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며, 먼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깨닫는 것이다.¹⁾ 이처럼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의도를 잘 깨달아서 그 내용을 설교자가 전하는 것이 설교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설교를 보면 세상적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여 설교를 하거나, 성경의 본문에 대한 적절한 해석 없이 세상적인 개념들과 함께 혼용하여 단지 교훈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고 만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풍랑과 신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22-33절을 본문으로 삼아 설교를 하는데, 서론에서 풍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의한다. 즉 “넓고 시원한 바다, 경치 좋고 기분 좋은 바다, 바다는 좋기만한 줄 알았더니 태풍이 불어와 물결이 5m, 10m만 넘으면 배가 나뭇잎처

1) 김홍진, 『기도에 대하여』, (서울: 성약출판사, 1999), p.179.

럼 흔들려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풍랑으로 배가 평 하고 깨지면 실었던 재산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배에 탔던 생명들까지 위협을 당하는 것이 풍랑입니다. 풍랑은 무섭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풍랑의 종류를 설명하기를 자연풍랑과 육지에 풍랑, 지옥의 풍랑으로 나누어 말하는데 어떤 근거나 자료, 성경적 이야기는 없다. 자연풍랑은 바다에서 이는 풍랑이고, 육지의 풍랑은 6,25 전쟁이나 흉년, 석유파동과 같은 것들 국가적 풍랑이나, 사업의 실패나 가족 중중한 병에 걸리는 것과 같은 가정적 풍랑, 개인적 풍랑이 바로 육지적 풍랑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물의 풍랑보다도 더 무서운 불의 풍랑이 계속되는 곳으로 풍랑과 상관없는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기를 축복한다고 말한다.²⁾ 풍랑에 대한 사회적이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지도 않고 그저 설교자의 개인적은 생각으로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지옥의 불의 풍랑에 대한 언급은 성경적 근거나 해석도 없다.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풍랑의 원인을 대하여 말하면서 “욕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경우를 성경의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옙바로 간 요나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벳새다 광야에서 5천명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였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편으로 떠나보내었던 예수님께서 그 밤에 바다위로 건너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성경말씀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런 주님을 통해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못한 인생들은 죽는다고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깐 ‘헌금을 내게 되었구나’하고 걱정을 하니 답답한 인생입니다”고 말한다.³⁾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풍랑일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주님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교훈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설교말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혼자 먹으려고 ‘가져오라’하신 분이 아니고 5천명을 먹이고, 어린아이도 실컷 먹이고, 열 두 광주리를 남기게 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친 자의 것을

2) 김창인, 『칭찬듣는 교회』, (서울: 총현교회 출판부, 1984), pp.151-153.

3) Ibid., pp.153-157.

빼앗아 잡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임금님으로 모시고,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 앞에 건축 헌금을 해 봅시다.”라고 말한다.⁴⁾ 차라리 헌금에 대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더 낫을 것인데 풍량과 그 풍량을 해결하는 예수님을 통해 신자가 해야 할 것은 성전건축을 위해 헌금해야 한다는 식의 설교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설교에 있어서 성경해석이 필수적인데 반하여 그런 성경해석의 수고가 결코 설교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는 신학교에서의 성경해석에 대한 정확한 원리와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기보다는 인간의 문학적 작품으로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여 학문적 성과는 많이 남겼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유익, 특히 설교에 유익이 되는 성경해석의 원리를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설교를 하는데 있어서 성경본문에 대한 해석보다는 겨우 사회적 이슈로서 한 주제를 선택하고 실제 생활에 교훈을 주는 식의 방법으로 사용할 뿐이다. 전혀 설교하고 있는 본문의 상황이나 문법적 의미, 역사적 의미, 신학적인 사고 없이, 단순한 설교자의 생각과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고서는 그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이다.

이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태도라 보기 보다는 단지 인간의 견해나 주장을 논하고 그곳에서 단지 오늘날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훈만을 받으려는 모습뿐이기에 오늘날 올바른 성경해석의 원리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전제하에서 진정한 성경해석이 원리적으로 드러날 때, 그 원리들을 통해 분명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리시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설교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다.

B. 연구목적

이런 성경해석에 대한 올바른 학문적 접근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성경해석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⁵⁾을 통해 설교하는데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을 대할 때

4) Ibid., pp.159-160.

바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른 성경해석원리를 통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전해주시고자 하는 올바른 뜻을 잘 깨닫고, 우리는 깨달은 내용을 통해 자기 생활의 행보가 어떠해야 할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을 어떻게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본 논문은 성경해석의 원리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가진다.

C. 연구방법 및 범위

방법에 있어서 Dickson이라는 학자가 히브리서주석을 통해 보여주는 그의 성경해석의 방법을 살펴봄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원리적인 성경해석적 측면을 발견하고자 한다. 히브리서를 주석하면서 어떤 관점과 원리를 가지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덕슨의 히브리서주석 전체를 다 살펴보겠지만 지면상에 표현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대표적인 것을 들어 샘플로서 자세하게 제시할 것이고 나머지는 각주를 통해 나타내기만 할 것이다.

더욱이 그 연구범위를 Dickson의 성경해석으로만 제한하여 그의 성경해석이 개혁주의신학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칼빈의 저작들과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개혁주의 성경해석원리로 제안하고자 한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Dickson이란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고, 동시대의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에 그의 히브리서주석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성경해석에 원리를 몇 가지 찾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경해석의 원리들이 개혁주의라는 신학과 얼마나 연관이 될 수 있는지를 칼빈의 저작들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5) 버나드 램, 『성경해석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4), pp.20-23. 버나드 램은 성경해석의 필요성을 일차적으로는 성경해석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기 때문이며, 이차적으로는 성경저자의 생각과 현대인의 생각 사이의 간격을 잇는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II. 본 론

A. Dickson에 관한 자료들

1. Dickson의 생애 및 저작 (David Dickson, 1583~1663)

스코틀랜드 주석가로서 1583년경 글래스고우에서 출생하여 1663년에 사망하였다. 디슨은 글래스고우에서 공부하였으며 1618년까지 그곳에서 철학을 가르쳤다. 1618년에 디슨은 에이셔에 있는 어빈의 목사로 안수를 받았는데, 「퍼스 5개 조약」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1622년에 면직되었으나 그 다음해 복직되었고, 1640년에는 글래스고우에서 그리고 1650년에는 에든버러에서 신학교수를 지냈다. 그는 1662년에 수장령에 대한 선서 거부로 인해서 해임되었다. 디슨은 1639년에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총회의 회장이었다. 디슨의 주석들로서는 *Explications upon the Psalms*(3 vols, London, 1653-55), *Exposition of Mattew* (1651), *Explanation of Hebrews* (Aberdeen, 1635), *Exposition og all the epistles* (Latin, Glasgow, 1645; English, London, 1659) 등이 있다. 디슨은 또한 *Therapeutica sacra, seu de curandis conscientioe circa regenerationem per foederum divinorum applicationem* (London, 1656; Eng. transl, 1695)과 시편을 약간 보통 곡조로 읊조리기 위한 짧은 시들을 모아놓은 *True Christian Love* (Edinburgh, 1655) 등도 출판하였는데, 이 저서는 잘 알려진 〈O mother dear, Jerusalem〉을 수록하고 있다.⁶⁾

2. 사무엘 러더포드⁷⁾가 Dickson에게 보낸 편지

6) 한영제, 『기독교 대백과사전4』, (서울: 기독교문서, 1981), p.882.

7) 한영제, Ibid., p.1090. 1600년 현재 크레이링의 일부인 니스벳 교회구에서 출생하여 1661년 3월 20일 락스버러셔의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사망. 에든버러대학을 졸업하였고, 1623-25년까지 인문학연구 지도교수로 일하다가 1626년에 신학공부를 시작하였다. 1627-36년에 갤러웨이의 앤워드드의 목사로 봉직하였고 1639년에 세인트 메리대학과 세인트 앤드류스대학교에서 신학교수가 되었고 1643년 웨스트민스터회의에 참석할 스코틀랜드 대표위원들 중의 한 사람으로

딉슨에 대한 자료가 현재 한국에 대단히 부족하다. 그런데 사무엘 러더포드가 딉슨에게 보낸 편지가 두 편 소개되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딉슨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러더포드가 딉슨을 향하여 “사랑하는 형제여, 불쌍한 빚쟁이인 제가 원금을 갚을 수 없으니 이자라만이라도 갚도록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헛소리나 농담이 제가 쓰고 있는 것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8)”고 말한 것을 보아 딉슨이 러더포드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었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통해 딉슨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또한 “시간이 있으면 언약에 관한 당신의 글을 자세히 읽고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과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약에 대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견해에 관해 적어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9)”는 내용은 딉슨이 당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논쟁속에서 그의 글이 그들과 논쟁이 되었고 개혁주의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그의 글이 권위 있게 인정받아 당시 학계에 유익함을 끼쳤다는 것이다.

러더포드와 딉슨의 인간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편지가 또 하나가 있다. 딉슨의 아들이 죽었을 때 보낸 것으로 “제가 당신의 집안 시련을 당신에게서 좀 거들 수만 있다면 당신과 함께 고난을 받고 싶습니다.”고 말한다. 딉슨과 러더포드는 함께 고난을 나눌 만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 당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니 당신의 기도로 저를 도와 주십시오”라고 할 정도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사이였다.10)

그런데 이 편지에서 딉슨의 학문성과 유능한 설교가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데 “글래스고에서 당신이 설교하신 것은 그 성경 본문에 대한 옛 것이나 현대의 어느 강해보다 훌륭합니다.”고 말한다.11) 이런 러더포드의 평가는 우리가 딉슨

선출되었으며, 1651년 세인트 앤드류스대학교의 총장이 되었다. 러더포드의 서신들은 특별히 흥미있고 교훈적인데 <Joshua Redivivus>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8) 사무엘 러더포드, 『사무엘 러더포드 서한집』, 이강호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pp.164-165.

9) Ibid., p.166.

10) Ibid., pp.455-456.

11) Ibid., p.456.

의 히브리서주석을 통한 연구의 적합성을 증거 해 준다. 왜냐하면 디슨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성경본문에 대한 해석이 명쾌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디슨의 히브리서주석을 통해 개혁주의 성경해석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의 주석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러더포드는 디슨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언급하고 있다. “히브리서에 관한 당신의 책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¹²⁾”라는 말은 당시 그의 히브리서주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권위가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유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히브리서주석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익할 것을 암시한다.

B. Dickson의 히브리서주석

1. Dickson의 히브리서주석에 대한 설명

디슨의 히브리서주석은 앞에서 본 사무엘 러더포드가 보낸 편지에서처럼 당시 신학학계와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사료된다. 그래서 그의 그 히브리서주석에 대한 고찰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의 히브리서주석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표제와 주석을 하기 전에 앞선 부분에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¹³⁾ 이것은 오늘날 히브리서저작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¹⁴⁾에 있어서 당시 17세기

12) Ibid., p.166.

13) 디슨, 『A Short EXPLANATION, Of the Epistle of Pavl to the Hebrewes』, Aberdeen: Edw. Raban, 1635, p.1. 디슨은 제목을 『A Short EXPLANATION, Of the Epistle of Pavl to the Hebrewes』로 표현하면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 하다.

14) 사본학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고대 사본인 P⁴⁶(3세기 초)에는 이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 중 하나로 로마서 다음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다.(D.A. 카슨, 더글라스 J. 무, 레온 모리스, 『신약개론』, 서울: 은성출판사, 1993, p.451.) 그리고 내적인 증거로 볼 때 사도 바울, 바나바, 누가, 클레멘트, 실루아노, 아볼로, 빌립, 브리스길라등 다양한 인물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도날드 거쓰리, 『신약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pp.683-693.) 결국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인간 저자를 말할 수 없다, 작자미상이란 결론으로 하나

에는 사도바울의 저작성이 공증되었던 것임을 알게 한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즉 사도바울의 신학으로 히브리서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썼던 다른 성경과 관계속에서, 히브리서를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로 디슨의 히브리서주석을 구조적으로 보면 먼저, 히브리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약도처럼 히브리서전체를 요약하여 진술하고, 각 장별로 장별 전체를 요약 한 후에 각 절로 주석해 가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각 절을 다시 번호로 자세히 상술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오늘날 많은 주석서들과 비슷한 모양이다.

본 논문이 디슨의 히브리서주석 전체를 번역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히브리서주석을 통해 성경해석의 방법을 찾고 적용하려는데 있기에 디슨의 히브리서주석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제시하면서 디슨의 성경해석에 대한 몇 가지 방법적 원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디슨의 히브리서주석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

디슨은 히브리서주석을 하기에 앞서 히브리서 주석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주석을 해 나간다. 그의 이런 전체적인 관점을 파악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의 히브리서주석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레위기적인 율법들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적 내용들을 준수하고 끌려가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그들이 복음의 간명성으로 이 끌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핍박으로 인해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떠날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다. 그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의 성품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인간과 천사를 훨씬 뛰어 넘는 그 예수그리스도의 활동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주님의 인격과 관계된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셨다(1장).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영광 (2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뛰어넘는 그의 직분(3장),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기독교 교리를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넘만이 아실 것이라고 말한다.(류호준, 『히브리서』,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p.32.)

그들을 경고한다(3,4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기적 대체사장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경고한다(5장). 그들에게 다시 경고하기를 그로부터 그들은 배교해서는 안 된다(6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레위기적 영광보다 뛰어난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모든 것이 완성되고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7,8,9,10장). 다시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인내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으로 통한 인내로서 예수그리스도는 그들 앞에 있던 신앙인들의 모범을 따라서,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에게 위로가 있다(10,11장).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들의 평안의 다른 근거가 된다(12장). 그것은 결국 그리하여 복음에 대한 충분한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 장차 온 도성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더 이상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지 않게 하는 것이다(13장).”¹⁵⁾ 라고 말한다.

이런 덕슨의 히브리서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은 당시 율법의 영향 아래있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지금 그들에게 겪는 고통과 핍박으로부터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않도록 경고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알게 한다. 이런 관점으로 히브리서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덕슨의 해석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유대교적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으로부터 배교하지 않도록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였다는 생각이다.

3. Dickson의 히브리서주석을 통한 성경해석 방법

3.1.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

덕슨은 히브리서를 주석함에 있어서 먼저 성경구절을 말하고 그것에 대하여 전체적인 해설을 한 후에 다시 번호를 매겨서 자세히 상술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성경구절을 주석에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히브리서주석 전반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15) 덕슨, *op. cit.* pp.1-2.

예를 들어, 히브리서 1장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1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서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이다(2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¹⁶⁾

딤후는 3절에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를 해석하기를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즉 나무와 그 즐기와 같은 관계의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벧전1:24). 그래서 첫째, 우리의 죄는 더러운 것이다. 그것은 깨끗해져야만 한다. 둘째, 우리의 죄가 충분히 깨끗해지는 것은 고통과 같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가 올라가기 전에 모든 피조물과 분리된 자기 혼자로서 그에 의해서 이미 한 것이고 끝났다. 셋째, 그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붙드셨고 그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신 그는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며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의 같은 인격이다.”¹⁷⁾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부분을 요한복음 17장 4~5절을 통해 설명하기를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 위엄이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셨을 때,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이 세상이 있기 전에 가졌던 같은 영광을 함께하는 인간으로써 자기스스로 열증하였다(요17:4,5). 그래서 첫째, 죄는 아버지의 함께 같은 영광에 함께하는 기뻐하는 것이며 더욱이 그의 성육신 전에 그의 신성과 그의 부활 후에 그의 인성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추어졌던 신성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그의 인성의 고통하는 동안 그것은 폐지된 것도 아니고 그것에 의해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첫 번째 인성은 신성과 함께 동일한 인격을 취하였고, 그것은 우리의 속죄는 비싼 것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 속죄기도 후에 같은 영광의 결합인 구세주는 아주 영광스러울지 모른다.

둘째, 그가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것을 보는 것은 그의 가난과 갈증, 빈곤과 약함, 부끄러운 그의 죽음과 같은 우리에게 정결을 의미하는 모든 것을 가진다

16) Ibid, p.6.

17) Ibid, p.8.

하더라도 그의 인격의 영광스러움이다. 또한 우리의 눈에서도 영광스러울 것이다.

셋째, 위엄과 장엄으로 당연히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은 주님의 것이다. 창조물의 가장 높은 훌륭한 것이 그의 위엄과 그와 유사한 약함을 나타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주의 위대함을 잊어버렸기에 창조물들의 영광은 종종 인간의 눈에 갖고 있다.”¹⁸⁾라고 말한다.

이런 모습은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다음 구절(5-14절)에서 구약 시편의 말씀들로 천사들에 관한 내용과 아들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처럼 디슨은 베드로 전서와 요한복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장 3절을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그의 성경해석 방법은 그의 히브리서주석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¹⁹⁾

디슨이 이렇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이 그 자체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주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모습은 이미 오래전 벌써 예수님께서 친히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실 때에 나타났었다.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²⁰⁾을 인용하여 완벽하게 해석해 주셨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어떤 것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18) Ibid, pp.8-9.

19) 디슨이 히브리서를 주석함에 있어서 다른 성경들 통해 설명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히브리서 2:5 - 고린도후서5:27; 에스겔42:19; 고린도후서 5:17; 로마서8:19 (Ibid, pp.22-23.), 히브리서 6:13,14,15 - 창세기22:16(Ibid, pp.103-104.), 히브리서 6:18 - 민수기35:6(Ibid, p.108.), 히브리서7:6,7 - 말라기 2:9(Ibid, pp.121-122.), 히브리서8:5 - 출애굽기25:40(Ibid, p.153.), 히브리서8:8 - 예레미야31:31(Ibid, pp.155-156.), 히브리서8:9 - 예레미야 17:23, 31:31~33(Ibid, p.157.), 히브리서8:11 - 요한복음4:42(Ibid, p.161.), 히브리서 9:9 - 베드로 전서 3:21(Ibid, p.171.), 히브리서 9:16 - 예레미야 31:31(Ibid, p.180.), 히브리서9:17 - 요한계시록13:8(Ibid, pp.181-182.), 히브리서9:28 - 마태복음1:21(Ibid, pp.191-192.), 히브리서10:28,29 - 민수기16:3, 고린도후서6:16,17,18(Ibid, pp.236-237.), 히브리서10:30 - 신명기32:35,36(Ibid, p.238.), 히브리서12:29 - 신명기4:24(Ibid, p.309.)

20) 신명기 8장 3절 -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것²¹⁾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덕슨이 이렇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기에 성경해석의 원리로 삼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히브리서주석 전반에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가장 핵심의 성경해석 원리로 삼고 있는 것이 더욱 주목할 만하다.

3.2. 문법적 해석

덕슨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의 성경해석의 전반적인 것으로 삼으면서 그것을 전제로 하여 문법적 해석²²⁾을 하고 있다. 그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설명함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과 둘째로, 일정한 구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 그 두 부분을 서로 비교 대조함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그의 히브리서주석에 나타난다.

3.2.1.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덕슨은 히브리서 2장 1절을 해석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을 더욱 간절히 주의해야 한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²³⁾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Slip’이란 단어이다. 덕슨은 이 단어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므로 2장 1절의 해석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덕슨은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하겠다. 그리스도라는 분의 자신의 뛰어난으로부터 강요받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의 신앙을 강요받는 것이다.”²⁴⁾고

21)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1』, (서울: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1999), p.43.

22) 루이스 벨코프, 『성경해석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65), p.74. 벨코프는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기에 무엇보다도 문법적인 설명을 요한다고 말하면서 본문을 연구할 때 통일적으로 저자의 사상이 드러난 그 문장을 시각적으로 해서 특수 분야로 내려간 후에 개별적인 낱말이나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후자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전체적인 사상이나 문장을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23) 덕슨, op. cit., p.18.

말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품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할 분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존경을 받을 것인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존중히 여길 때이다. 그리스도의 뛰어난이란 그분의 말씀을 아주 존귀하게 받아들이는 일을 야기시킨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꾸준히 보유하도록 만든다.”²⁵⁾고 말한다. 여기까지는 ‘Slip’이란 단어를 집중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중요성과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제 이후에 그리스도가 그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Slip’이란 단어로 자세하고 풍부한 의미로 상술해간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은 그것(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Slip). 그 단어(Slip)는 ‘깨지고 새는 그릇’이라는 단어와 ‘모래바닥’이라는 뜻으로 채용된 것이다. 바위에 그릇이 깨져서 주르르 흐르는 것처럼 깨진 그릇에 물이 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가치가 높은 음료수인데 그것은 잘 보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깨진 그릇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기에 쉬운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조차도 잘 흘려보내는 존재, 또는 미끄러지는 모래바닥과 같은 존재로써 빗물을 담지 못한다.”²⁶⁾고 말한다. 디슨의 이와 같은 말을 이해하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본성이 바로 ‘Slip’이란 단어를 통해 깨지고 새는, 그래서 모래를 손으로 움켜잡으면 밑으로 새는 듯한 존재라는 것이다.

계속해서 디슨은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뛰어난 가치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보존하기에 부적격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주의와 주목을 더 예리하게 해서 그것을 보존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심할 바 없이 놓치게 될 것이다.”²⁷⁾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는 것은

24) Ibid.

25) Ibid., pp.18-19.

26) Ibid., p.19.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그릇을 인식할 때의 이루어지는 것임을 디슨은 바로 'Slip'이란 단어를 통해 더욱 강화시켰다.

마지막으로 디슨은 히브리서 2장 1절을 해석하는데 “잠깐 경성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잠깐 동안 믿고 기억하는 것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우리는 도리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나 불신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쥐고 있어야 한다. 진리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사랑과 신앙이라는 것은 잘 기억하는 것이다.²⁸⁾”라고 마무리 짓는다. 즉, 이런 우리의 존재가 'Slip'과 같은 깨어진 그릇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 잘 기억하는 것이 신앙임을 역설하는 것이다. 디슨은 기억으로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 즉 진리는 기억이며 기억하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더욱 진리의 내용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고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디슨은 'Slip'이란 단어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성격과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지닌 존재로써의 상관 관계속에서 진리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Slip'이란 단어를 통해 역설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천사들로 하신 말씀과 대비된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더욱 높이는 히브리서 2장 2절의 내용으로 이어지게끔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디슨이 하는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벨코프나 다른 학자들이 말하는 문법적 해석과는 좀 의미가 다르다. 보통의 문법적 해석이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문상의 낱말의 어원학적 의미를 살펴 그 낱말의 참된 의미를 찾아내거나, 또는 그 낱말이 사용되는 용법 즉 동사의 경우,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수동형인지, 능동형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좀더 풍성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또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인 동의어나 반의어를 통해 다른 뜻이 사용을 파악하고 그래서 폭넓은 다양한 의미를 받

27) Ibid.

28) Ibid.

견하는 것이다.²⁹⁾

그러나 지금 덕슨의 경우는 오히려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원문상의 단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와 맞는 현대적인 새로운 단어를 통해 그 현대적인 새로운 단어가 주는 의미와 해석하고 있는 그 구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상호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즉 'slip'이란 단어가 깨어진 그릇과 모래바닥이란 의미로 채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존재를 설명하고, 그런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오는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높은 권위를 역설함으로서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늘 간직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모든 단어들을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입장이나 문맥의 큰 주제에 맞춰 강조해서 집중적으로 해석해야 할 단어를 해석함으로 그 구절에서 말하려는 바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덕슨의 단어를 집중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은 다른 본문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3장 1절을 해석하는데 '하늘의 부르심'의 'Heavenlie Calling'이란 단어를 통해 당시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한다.³⁰⁾ 또한 히브리서 5장 1절을 해석하면서 '대제사장'의 'High Priest'이란 단어를 통해 대제사장의 임명과 자격, 임무, 역할, 그로인한 그리스도와의 관계까지 그 의미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간다.³¹⁾ 그런 면에서 덕슨에게 있어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그의 히브리서주석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성경해석 원리를 제시한다.

3.2.2. 구절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문법적 해석에 있어서의 덕슨의 두 번째 방법은 일정한 구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 그 두 부분을 서로 비교 대조함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덕슨은 히브리서 6장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4-6절과 9-10절 두 부분을 서로 대조함으로서 외형된 신자와 참 신자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다. 1-3절

29) 루이스 벌코프, *op. cit.*, pp.74-87.

30) 덕슨, *op. cit.*, p.39.

31) *Ibid.*, pp.71-75.

에서는 기독교의 교리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Foundation)라는 부분과 완전(Perfecion)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디슨은 말하기를 “기독교 교리에 는 두 부분이 있다. 하나는 기독교의 원칙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의 완전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기독교 신앙의 원칙들은 반드시 배워져야 하는데 그것은 기초를 놓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이런 원리들을 배우게 되면, 그 선생님들은 이런 교리를 계속 발전시켜줌으로서 완성으로 나가게 된다.³²⁾”는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찌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디슨은 기독교교리를 기초와 완전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눠 설명한다.

그런데 이런 기초에는 6가지가 있다.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이런 기초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있게 된다(3절). 그래서 디슨은 신자들의 마음을 이런 기초로 말미암아 완전 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들 앞에 배교의 위험을 말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 참 신자의 모습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떠나 기독교를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배교로부터 그들을 지키려는 것이다.

디슨은 4-6절의 말씀을 “그러므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과 함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힘을 맛본 사람이 돌아오기란 불가능하다. 만약 그들이 떠난다면 그들이 새롭게 하여 회개 할 수 없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수치 당함을 보임이다.³³⁾”라고 해석한다.

그러면서 4-6절에는 하나의 사슬과 같은 연쇄성이 있어서 이를 함께 해석한다. “신자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기 위해서, 신앙 지식에 있어서 진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들 앞에 배교의 위험에 대하여 말하게 되었다.³⁴⁾” 그리고 배교의 순서가 있다고 말한다. “이들이 배교하는 순서는 완성을 가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첫째, 뒤로 물러가고, 그 다음 배교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경향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잘 알려진 진리로부터 자발적이고 충분한 배교가

32) Ibid., p.85.

33) Ibid., pp.87-88.

34) Ibid., p.88.

일어나면 회개를 막는다. 사람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 이런 배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한다.³⁵⁾”는 것이다. 디슨은 배교의 나타나는 모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앙에 시름에 빠지는 것이 바로 배교의 길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슨이 보기에 히브리서저자인 바울은 배교의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중요한 한 부분을 다루고 있음을 말한다. “신앙지식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부터의 배교만을 다루고 있다. 게다가 배교문제를 다룰 때 불신자의 배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조명을 받고 어떤 진리의 능력을 느낀 사람들 가운데 반역한 사람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두려움에 연약함으로 배교한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을 다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의 배교를 다룬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눈에 가시적 교회에 어떤 사람들의 배교를 다루고 있다. 이런 신앙 외형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배교위험이 무엇임을 말함으로서 어떤 사람의 신앙을 연약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는 자기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신앙에 더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다.³⁶⁾”는 것이다. 디슨은 히브리서기자인 바울이 여기서 의도하는 있는 것은 신앙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바로 서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디슨은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서 4-6절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9-10절과 연관되어 있고 이것을 염두하며 이해하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란 문제에 스스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런 실수의 문제에서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4-6절을 9-10절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두 가지 점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이 4-6절에서는 히브리서가 가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고, 9-10절에서는 참된 신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³⁷⁾” 즉 디슨이 보기에 4-6절

35) Ibid.

36) Ibid., pp.88-89.

37) Ibid., p.90.

의 내용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고, 9-10절은 내면적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디스는 4-6절과 9-10를 대조함으로서 해석해 간다. “4-6절에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은사들이 나온다. 한번 비추는 것, 신령한 일들을 맛보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9-10절에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신앙과, 예수님을 향한 영광, 신자들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 되고 있다. 4-6절에서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등록신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9-10절은 아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영혼을 다루고 있는데 죄 의식에 있어서 진노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은혜를 소망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도피하고자 하는데 내면적으로 민감한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³⁸⁾ 4절에서는 은사를 추구하는 교인들을 말하고 있다면 9절에서는 신앙과 사랑, 영광을 삶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과 내면적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디스는 계속해서 “4-6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좋은 일들에 대해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며, 9-10절의 사람들은 이런 좋은 일들에 비해 더 나은 좋은 것을 받은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다.³⁹⁾ 즉 외형적으로 받은 은사는 좋은 것이고, 내면적으로 사랑과 믿음은 더 좋은 것이다. 또한 “4-6절에서는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이 언제나 구원에 동참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9-10절은 구원은혜에 대해 말하고 거기에 참석한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결국 4-6절에서 히브리서를 쓴 사도가 가시적 신자들에 대하여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지만, 9-10절에서의 신자들은 항상 떨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⁴⁰⁾”

이처럼 디스는 히브리서 6장을 해석하는데, 4-6절을 독립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9-10절과 함께 해석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리가 기초적인 것과 완전한 것이 있는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완전한 데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외적인 그리스도인과 내적인 그리스도인을 대조적으로 그림으로서 그

38) Ibid.

39) Ibid.

40) Ibid., pp.90-91.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덕슨은 이제 히브리서 6장의 4-6절과 9-10절의 비교를 통해 3가지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4-6절에서 나오는 이런 외형적인 신자는 배교할 가능성이 있지만 거듭난 참된 신자는 절대로 배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4-6절과 9-10절을 비교할 때 나타나는 것은 외형적으로 이름뿐인 신자들은 배교할 가능성이 있지만, 새롭게 되어진 중생한 심령들은 배교할 가능성이 없다.⁴¹⁾” 그럼 배교가 왜 일어나는가? 외형적인 신자들에게는 공포 가운데 있기에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이런 첫 번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배교가 있지 않다. 외형적 신자는 육체적 확신만을 가지고 있고, 외형적 확신은 그 자체로 흔들릴 뿐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약해지지 않아서 배교하지 않는다. 배교는 이런 열매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열매 없는 것이 되지만, 참된 신앙과 활동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⁴²⁾”

두 번째, 4-6절과 9-10절의 비교를 통한 차이점은 비록 성령이 이들 모두와 관계하시지만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덕슨의 성령의 대한 견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비교로부터 또다시 분명해지는 것은 성령이 두 사람에게 다 주장자이다. 영적 은사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구원 은혜에도 성령이 두 사람에게 주장자가 되신다. 첫째로 일반적 은혜에 대하여 말하면, 성령이 주장자이신데 외형적 신앙자에게도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형적 신자에게도 좋은 일들을 나눠 주신다.⁴³⁾” 즉 덕슨은 성령의 활동에 대해 말할 때, 자연만물에 다 비취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일반은총으로 다루고 있기에 외형적인 신자들에게도 영적인 선한 일들을 분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동시에 구원에 주는 은혜의 주장자가 되셔서 마찬가지로 참된 신앙고백자들에게 거하시고, 성령자신께서 위에 나오는 은사들보다 더 나은 일들을 신자들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나눠주신다.⁴⁴⁾” 결국 덕슨이 성령에 대

41) Ibid., p.91.

42) Ibid.

43) Ibid.

하여 말하고 있을 때, 외형적 신앙 고백자에게도 성령이 비치고 있다는 관점을 보게 된다. 이는 영감의 범위가 일반영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성령의 활동에 관해서, 외형적 신자들에게 성령의 나눠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나눠주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더 좋은 일이다. 분명 질적인 차이만 있지, 둘 다 성령이 주장자이심을 말하고 있다.

세 번째, 4-6절과 9-10절의 비교를 통한 차이점은 회심의 모양에 있다는 것이다. 디슨은 성령께서 외향적인 신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설명한다. “이런 비교로부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회심의 모양이다. 어떤 회심자들은 외형적인데,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전향하는 신자도 있다. 그럼에도 자연적인 성향에 매여 있는데, 죄 의식속에서 그리스도를 도피처로 생각하여 도망하지 않는다. 자연으로부터 구원하는 은혜로 돌아서지 않는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한번 비침을 받는 것과 영적 신령한 일들을 맛보는 것이 그 마음속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도 영적 은사들을 맛보는 것이 허락되는데 진정한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것이 주어질 수 있다.⁴⁵⁾” 디슨은 외형적인 신자들이 겉으로 보이는 회심의 모습이 분명 나타나며, 더욱이 성령의 은사들까지 받게 되고, 교회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정적으로 핍박과 고통이 올 때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을 느끼며, 결국 배교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연적인 이런 사람들까지도 교회는 축복받은 사회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그 사회에 연합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외형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를 외형적으로 부를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교리에 다스림을 받기도 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를 수도 있고, 심지어 거룩한 생활을 할 수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흠 없는 생활을 해서,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보일 수 있다. 심지어는 복음의 지식을 문자적으로 배우는 학습을 통해서 비침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성경 안에 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44) Ibid., pp.91-92.

45) Ibid., p.92.

비춤을 얻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은사가 자연적이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은사들을 맞볼 수 있다. 복음의 진리를 역사적으로 믿음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진리를 명상함으로서 맞볼 수 있다. 모든 진리에 대한 명상과 조망은 큰 일을 가져다주는데,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학문에서 환희를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⁴⁶⁾”

여기서 덕슨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마 7:15-23)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천국을 비유하면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마 25:1-13)으로 설명한다. 그런 모습은 뒤에 이어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심지어 그는 외형적인 신자는 성령의 참여자가 되기도 한다.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어떤 때는 공적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외형적 신자가 다른 사람의 의심에 대하여 대답할 수도 있다. 심지어 연약함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신앙으로 어떤 사람을 세워주기도 한다. 심지어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는 신앙이 없는데도 목회자가 될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설교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외형적으로 성령에 참여한 것이다. 심지어는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이적을 베풀기도 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나에게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말씀에도 참여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내세의 능력까지도 맞볼 수 있다.⁴⁷⁾” 이처럼 덕슨은 외형적 신자들을 성령의 참여자로서 다양한 성경구절을 근거로 하여 설명한다.

그러면서 이제 외형적인 신자들의 성령의 참여자로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된 신자들에게 주의할 점을 들어 참된 신자들의 자세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조명과 하늘의 은사들과 내세의 능력을 맞보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간에, 여기에는 맞보는 것 이외에 더 이상 허락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은 지식으로 맞보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이런

46) Ibid., pp.92-93.

47) Ibid., pp.93-95.

외형적인 신자의 맛보기와 비교할 때 참된 신자가 얻는 것은 참된 먹는 것과 참된 마시는 것이다.⁴⁸⁾” 덕슨은 외형적 신자들이 성령에 참여하는 자로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맛보기로만 주어진 것일 뿐, 진정한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참된 신자들에게만 내면적인 것으로 사랑과 믿음과 영광이 주어진다 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덕슨은 참된 신자들은 이런 경고를 잘 받아서 기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완전케 이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교제를 나눌 것이요 우리의 욕정과 욕심을 죽이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 속에 머물려고 해야 한다.⁴⁹⁾” 덕슨은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들의 자세임을 말한다.

덕슨의 의도는 선명하다. ‘4-6절의 외형적인 그리스도인들’과 ‘9-10절의 참된 내면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극명한 차이점이 보이는 두 대상을 비교함으로써 풍성한 의미들을 설명해 준다. 즉 성령의 활동이라는 개념을 외형적 그리스도인들과 참된 내면적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적용시킴으로서 성령의 활동의 범위가 교회와 신자만이 아닌 외부적으로도 성령에 참여하는 자를 제시하고, 그로 인하여 더욱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차별적인 사랑과 믿음, 영광을 들어낸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과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배교의 자리로 가려는 이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덕슨은 두 구절을 대조시키면서 해석해 나간 것이다.

이러한 덕슨이 구절들을 서로 비교 대조하는 해석방법을 사용하는 것 또한 자신의 히브리서주석을 통해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속에서 외적 신자와 내적 신자로써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회안에서의 구별을 말하고, 이들 사이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내적인 참된 신자들에게 확신과 소망과 함께 유혹과 핍박, 고통으로부터 보호, 위로를 주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덕슨이 자신의 히브리서주석을 썼던 당시 시대상을 살펴봄으로써 이런 성경해석의 방법을 왜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한다.

48) Ibid., pp.95-96.

49) Ibid., pp.96-97.

딕슨이 살았던 그 당시 사회상을 살펴보면 17세기에서 종교는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과 국회와 도시 위원회도 종교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다.⁵⁰⁾ 그런 중에 1618년 제임스 I 세가 스코틀랜드 교회들에게 퍼스의 5개 조항을 수용하도록 강요하였다. 5개 조항의 내용은 성찬식에서 무릎을 꿇을 것과 사적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을 허용할 것과 사적 세례의 허용과 주교들에 의한 견진 성사와 성탄절과 부활절과 다른 비슷한 교회 절기들의 준수였다.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을 대단히 두려워하였다.

또한 대륙에서의 30년 전쟁이 1681년에 시작되고 1620년에 이 지방의 여왕이 제임스 6세의 딸이었던 보헤미아에서 개신교도들은 로마 카톨릭을 신봉하는 합스부르크왕가에게 완전히 패배하여 큰 고통을 당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스코틀랜드인들이 로마 카톨릭과 로마 교황청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⁵¹⁾ 스튜어트 왕조의 찰스 I가 스코틀랜드에 있어 부재국왕으로 군림하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지배, 강화함으로써 스코틀랜드 교회를 절대왕권의 한 지주로 삼으려고 하였다.⁵²⁾ 1625년 찰스 I세가 제임스 I세의 왕위와 종교정책을 계승했다. 새로운 왕은 자기 아버지의 절대 왕권에 대한 정책을 계속 추진했지만, 그의 아버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서 보여주었던 기술적인 노련함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는 곧 불행하게도 국민들로부터 의심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⁵³⁾

찰스왕과 그의 대주교는 국가에 있어서의 왕권신수설과 교회에 있어서의 감독권 신수설을 주장하였다. 청교도들은 더욱 더 반대를 당하고 박해를 받았다. 1629년 3월 10일 왕의 명령을 받은 하원의장이 의회를 해산하려고 했으나 교회의 변혁과 의회의 동의 없는 세금 부과를 반대하는 엘리엇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그는 의장석에 강제로 억류되었다. 이 일로 인하여 9명의 의원이 투옥되었고, 그리고 나서 11년간 찰스는 로드만을 그의 친구와 조력자로 삼아 의회 없이 독재적으로 통치했다. 조그만한 주장에 대해서도 청교도들은 추밀원에 넘겨

50) 헨더슨, 『스코틀랜드 교회사』, 홍치모, 이은선공역,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1), p.93.

51) Ibid., pp.96-97.

52) 홍치모, 『스코틀랜드종교개혁과 영국혁명』,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p.74.

53) 헨더슨, op. cit., p.98.

져 엄청난 벌금, 종신형, 칼 차꼬에 채이거나 혹은 귀나 코를 베이는 등의 고통을 당하곤 했다.⁵⁴⁾

스코틀랜드 교회를 영국 교회와 동일 노선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1636년에 교회법이 발표되었다. 이 책 속에 포함된 많은 실천사항들이 스코틀랜드의 개혁 교회의 실천 사항과 상이하였다. 이 책의 출판에 뒤이어 1637년 모든 교회들에서 사용하도록 지시된 기도서가 출간되었다. 이것은 영국의 기도서와 똑같았으며,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난한 나라가 영국의 한 성으로 전락할까 두려워하였다.

1638년 초에 교회의 영적 자유의 주장에 대한 지지자들이 에딘버러에 모여서 국민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민 계약은 알렉산더 헨더슨과 와리스톤의 아키발드 존스톤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계약의 서명은 1638년 2월 28일에 에딘버러에 있는 그레이프라이어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 서명을 시작할 때, 그곳에는 종교적이고 애국적인 흥분의 주목할 만한 장면들이 있었다. 귀족들, 젠트리들, 목사들,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계약에 참여했다.⁵⁵⁾

이런 덕슨의 구절의 대조를 통한 성경해석을 그의 주석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시 왕과 로마 카톨릭의 핍박과 두려움에 처한 스코틀랜드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위로를 주는데 있어 이러한 극명한 대조(4-6절에서의 외형적인 그리스도인과 9-10절에서의 참된 그리스도인)가 당시 상황, 즉 로마 카톨릭과 스코틀랜드교회의 대립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분명 덕슨의 히브리서주석을 읽고 있는 스코틀랜드교회의 성도들에게는 4-6절에 나오는 외형적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또 9-10절에 나오는 참된 내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큰 위로와 함께 자신들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덕슨의 구절의 대조를 통한 성경해석의 방법은 시대적 상황과 결코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극명한 대조를 통해 그 시대에 알맞은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덕슨의 의도가 담겨

54) A. M. 렌위크, A. M. 하만, 『간추린 교회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9), pp.154-155.

55) 헨더슨, op. cit., pp.98-101.

있는 것이다.

딕슨의 구절의 대조를 통한 성경해석의 방법은 또한 구절이 아닌 단어들의 대조와 비교⁵⁶⁾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히브리서주석의 여러 본문에서 나오지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히브리서 7장 1절-10절을 해석하는데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로 설명한다. 성경본문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만이 있지만 딕슨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모형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형으로 보는 관점에서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단락을 진행시켜 간다.⁵⁷⁾

이상에서 딕슨은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두 개의 단어들이나 구절을 서로 비교, 대조함으로써 성경을 해석하는 문법적 해석의 원리를 그의 히브리서주석에서 사용하고 있다.

3.3. 신학적 주제들로서의 해석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성경해석에 있어서 신학적 해석을 말하고 있는데 딕슨 또한 히브리서를 주석하는데 있어서 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 특별히 그레이다누스는 “신학적이란 말이 신학 이론이나 신학 과목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언급하는, 특히 하나님 자신의 계시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언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학적 해석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 해석은 단순한 역사적 재구성과 어구적 의미를 넘어서,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해 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해석은 예언적, 케리그마적 차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하나님 중심적인 초점을 갖고 있다.⁵⁸⁾”고 말한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려는 딕슨의 성경해석은 조직신학의 주제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딕

56) 딕슨, *op. cit.*, pp. 39-41. 딕슨은 3장에서 예수님과 모세에 대하여 2절에서는 공통점을 3절에서는 차이점을 들어 설명한다.

57) *Ibid.*, pp.114-120.

58) 그레이다누스,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 김영철역, (서울: 여수론, 1995), p.200.

슨은 본문을 해석한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조직신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본문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하면서 해석해 간다. 그리고 기독교론과 교회론을 바탕으로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3.3.1. 신론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의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나, 이 한 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불리우는 삼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삼위는 여러 사람의 여러 인격들처럼, 전혀 분리된 세 인격이 아니다. 삼위는 오히려 신적 본질이 존재하는 세 형태인 것이다. 동시에 명심해야 할 것은 신적 존재에 있어서의 이들의 자기구별은 그들이 서로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는 것이다. 성부는 성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며, 또한 성령을 파송할 수 있으시다. 이 삼위가 그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하나라고 하는 여기에 삼위일체의 참된 신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적 본질이 삼위로 분할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삼위는 각자가 완전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전체를 이루고 있어, 그것은 위격 밖에서나 위격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그 위들은 그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한 위가 다른 위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삼위는 어떤 인격적 특성에 의해서 구별된다. 이 교리는 신앙의 위대한 신비들 중의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⁵⁹⁾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디슨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성경을 해석해 간다. 디슨은 히브리서 1장을 주석하면서 1장을 요약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똑같은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며, 천사들은 예수님의 종들에 불과하며,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자 만물의 왕이시며, 그분의 인간의 머리가 되심과 직분에 관해서 보자면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다(9절). 예수님은 불변하신 영원하신 창조주이시며(10,11,12절), 아버지와 결합되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13절).⁶⁰⁾”고 말한다. 디슨

59) 루이스 벨코프, 『기독교 신학개론』, 신복윤역, (서울: 성광문화사, 1974), pp.85-86.

60) 디슨, *op. cit.*, p.2.

은 9절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분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하나님과 동일한 불변하신 영원하신 창조주로 보고 있는 것이고, 13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결합된 분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성령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삼위 일체적인 관계로 정확하게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성경구절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덕슨은 1장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서 사역과 예수님께서 만물의 후사로서의 사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실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교회에 대한 가장 위대한 교사이시다.⁶¹⁾” 덕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써 그 방식에 있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를 선지자나 사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배후에 진정한 교사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써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위대한 교사로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했다. 하나님에서는 단 하나의 방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음성을 통해,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영감을 통해, 우림과 둠빔을 통해, 의식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⁶²⁾”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더욱 분명하게 말한다. 하나님은 여러 시간에 여러 부분으로 점진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덕슨 이런 하나님의 사역과는 구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설명한다. 덕슨은 1절과 대비하여서 2절을 해석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분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설명한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일에 만물에 대한 후사로 세우시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창조하셨

61) Ibid., pp.2-3.

62) Ibid.

다.⁶³⁾”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수단으로 분명하게 구분된다. 덕슨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한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만물의 후사가 되신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세상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이양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만물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모든 것에 후사가 되셨다. 주님은 안식의 주님이시요, 안식의 관련된 모든 의식에 주님이시요, 결국 레위기적인 제도를 중지시키고 변화시키기에 적합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성시키실 수 있다. 모든 특권과 약속의 후사이시다. 그분을 통해서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들이 가져야 할 고유한 권위를 찾고 확인할 수 있으면 가질 수 있는 것이다.⁶⁴⁾” 그리고 또 덕슨은 히브리서 1장 2절 해석의 마지막에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통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러내셨고, 시간의 여러 세대와 여러 시간에,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이어지는 만물의 군단을 불러내셨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만물의 창조자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는 구분되는 인격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구분된 인격이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는 것은 아들이 동일한 것을 행하신다. 일에 관해서 말하자면, 아버지가 첫째로, 아들이 둘째다. 그러나 함께 일하고 아버지와 달리 일한다.⁶⁵⁾”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만물의 후사가 되시어 모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사역을 덕슨은 말하는 것이다.

이런 덕슨의 성경해석의 모습은 성부는 성자를 발생하고 성자는 성부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개념⁶⁶⁾과 성자의 발생은 삼위일체의 제 1위의 신적 존재 안에서, 자기 자신과 같은 제2위의 실존의 근거가 되며, 또한 그 제2위로 하여금 어떤 분할이나 분리 또는 변화가 없이 신적 본질을 전부 소유하게 하시는 영원하며 필연적인 행위라는 것⁶⁷⁾을 보여주는 것이다.

63) Ibid.

64) Ibid., pp.5-6.

65) 덕슨, op. cit., p.6.

66) 루이스 벌코프, 『기독교 신학개론』, op. cit., p.86.

67)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상)』, 권수경, 이상원공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p.292.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만물이 성부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것들은 성자를 통해서 나오게 되며, 성부가 종국적이라고 하면, 성자는 모든 창조와 구속의 중보적 원인이 되시고, 만물은 성자를 통해서 창조되며 보존된다”는 개념⁶⁸⁾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동등하시며 구별되시는 삼위일체적 사역에 대한 설명을 통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은 성격이나 다른 인격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전해준 충분한 메시야가 되심을 덕슨은 더욱 확증하는 것이다.

결국 덕슨은 1장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며 구별되시는 분이기에 옛날에 주신 율법을 합법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조직신학적 주제로 잘 설명하는 것이다.⁶⁹⁾

3.3.2. 기독교론 중심으로

이제 덕슨은 히브리서를 기독교론 중심으로 하여 해석해 간다. 사실 히브리서를 보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기독교론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⁷⁰⁾처럼 덕슨도 피해 갈 수는 없다. 심지어 히브리서를 주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직 기록론 중심으로 해설한다.⁷¹⁾ 존 브라운은 그의 주석에서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은 기독교 신앙

68) 루이스 벨코프, 『기독교 신학개론』, op. cit., p.90.

69) 덕슨, op. cit., p.43. 덕슨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3장 6절을 해석하는데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직신학적인 주제로 설명한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타고났다. 그리스도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됨에 있다. 아버지로부터의 영원한 출생이기 때문이다. 그의 권위는 본유적이다. 타고났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받으신 예배의 규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러므로 레위기의 규례들을 바꿀 수 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는 성부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개념이다.

70) 히브리서의 특별한 기독교론적 강조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요한이나 바울과 연관된 부분도 있지만, 이 세상과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은 신약성경 어디보다 잘 나타나 있다. 또한 히브리서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인다.(D.A. 카슨, 더글라스 J. 무, 레온 모리스, op.cit., 462.) 또한 이 서신의 주제는 ‘예수는 대제사장이시다’이다. (이종윤, 『신약개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8, p.539.)

71) 박윤선은 히브리서 내용을 분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심(1:1-3),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탁월하심(1:4-2:18),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탁월하심(3:1-4:13), 그리스도께서 아론보다 탁월하심(4:14-10:18),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산 길로서 탁월하심(10:19-12:29), 결론적 권면, 요구, 인사(13:1-25)로 구분한다.(박윤선, 『성경주석 히브리서공동서신』, 서울: 영음

의 주이실 뿐 아니라 그것의 위대한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한 천사들보다, 둘째 모세보다, 셋째 유대교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예증된다”고 말한다.⁷²⁾

그러나 덕슨의 기독교론은 체계적인 면모가 있다. 즉 기독교론을 언급할 때에 벌코프에 따르면 세 부분으로 나뉘 제1부는 그리스도의 위격으로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하여 말하고, 제2부는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비하와 승귀를 말하며, 제3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말한다⁷³⁾. 그런데 덕슨의 히브리서주석을 보면 이런 구조가 다 들어가 있다. 이에 우리는 그 순서에 맞게 살펴보고자 한다.

3.3.2.1.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 신성과 인성

덕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중에서도 인성부분에 대한 설명을 통해 히브리서를 주석해 간다. 덕슨은 4장을 해석해 가면서 안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대제사장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 하기를 그는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다.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임재가 하늘에 있다. 땅에 있지 않기에, 우리로부터 육체적 격리는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는데 방해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육체로 계신 것과 우리와 떨어져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점이 그분에 대한 우리의 권한,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분을 가지는 것, 또는 그분을 출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격려라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하늘로 들어가는 입장을 찾는 것에 있다.

히브리서저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에 굳건한 반석에 나아갈 때까지는 진정한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굳건한 반석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중보자의 안식에 얻어

사, 1956, pp.16-17.)

72) 존 브라운, 『헨드릭슨 패턴 주석 히브리서 (상)』, (서울: 아가페문화사, 1985), p.32.

73)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하)』, 권수경, 이상원공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pp.533-600.

간다.”⁷⁴⁾

딕슨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임을 강조하므로 그의 신성을 말한다. 즉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 그의 신성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인성에서 신성쪽으로 나가려는 모습을 대제사장과 안식의 개념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제사장과를 비교 대조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성을 말하는 가운데 그의 인성을 강조하게 된다. 딕슨은 5장 7절을 “그분은 그의 육체의 시험이 있을 때, 그분은 기도를 올리셨고, 간구하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분에게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 그 기도는 그가 경외하는 방식으로 드러졌다.⁷⁵⁾”고 직역하면서 설명하기를 “위 앞에서 그리스도의 직무가 대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을 증명한 후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활동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더 귀한 드림, 봉헌을 드리심으로서 그분이 제사장이라는 직무를 구약제사장보다 더 귀하게 행동하셨다. 자기 자신을 드렸으면서 눈물로 드렸고 죽음에 대하여 드렸다. 이런 말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분이다. 사람으로부터 한 대제사장이 취해졌다는 말은 정말 사람이다.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우리의 본성과 똑같다는 것은 죄 없는 연약함 즉 공포, 죽음에 종속한 사람이다.⁷⁶⁾”라고 말하면서 대제사장으로의 그리스도의 직무가 우리를 향한 행동이며 우리 육체와 똑같은 그래서 인간 본성으로 겪는 모든 연약함을 취하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한다. 사람으로서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딕슨은 이런 그리스도의 인성의 제한된 시간과 그 시간에서의 활동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함을 몸에 담고 있는 시간은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한정된 정해진 시간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육체의 날들 동안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활동하고, 시행하시고, 고귀한 눈물과 통곡을 보이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간구하셨다. 그 때문에 기도하셨고 주님의 기도는 거절되지 않고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서 이런 고통은 끝났다.⁷⁷⁾”

74) 딕슨, op. cit., p.66.

75) Ibid., p.75.

76) Ibid.

이처럼 덕슨은 그리스도의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동시에 함께 말하고 있다. 이는 “나사렛 예수는 신적 본성과 그 모든 본질적 속성들을 소유하신 하나님 자신이셨는데 그는 역시 참 사람이시며, 그의 인성은 아담의 줄기에서부터 생성에 의해 인출되셨다. 이 본성들은 그의 인성에서 결합된 채로 지속이 되지만, 참된 신성과 참된 인간성은 언제나 섞여지지 않고 불변된 본체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연합된 한 단일한 인격을 구성하고 있으며 또한 두 본성들의 속성들은 한 인격에 속하고 있다.”⁷⁷⁾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적합한 교리에 대한 진술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설명하면서 나타난다. “이런 예수님이 공포를 느끼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고유한 행동들이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신성이 그 자체의 적당한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성도 가지고 있다. 어떤 행동들은 이 두 가지 본성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질 수가 없었다. 또는 자기 자신도 도울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신성에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그 본질적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으로서 우리의 부족한 점과 연약한 점을 채우시고 이런 도움을 위한 기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보증자가 되시고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선명한 모범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진실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예가 되셨다.

인성을 가지고 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셨고, 기도도 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심지어 통곡까지 하셨는데, 왜냐하면 죽음이 잠시 동안 예수님 앞에 자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와 성부에 죄에 대한 진노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극복하시고 바꾸셔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시적인 형체로 바꾸셨다.”⁷⁹⁾고 말한다.

이처럼 덕슨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조직신학적 교리를 정확하게 적용하여 히브리서를 주석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조직신학적인 주제들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77) Ibid., p.75-76.

78) 하지, 『하지 조직신학 제2권』, 고영민역, (서울: 기독교문서, 1981), pp.173-174.

79) 덕슨, op. cit., pp.76.

것이다.

3.3.2.2.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 비하의 신분 - 그리스도의 고난

두 번째로 디슨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개념으로 성경해석을 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그리스도의 인성부분과 연관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의 마땅한 고통을 실제로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받아주셨으며 이런 고난을 받았을 때 머릿속에 상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실제로 강렬하고 두려운 고난이었다. 예수님의 고난은 환상 속에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것이었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심지어 두려운 것이었다. 어떤 무기도, 어떤 방해물,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는데 단지 하나님께 도피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⁸⁰⁾”

특히 디슨은 5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영원한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 또는 예수님을 구원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즉 주님의 고난은 그의 완전함이다. 다음과 같은 열매가 주어진다. 그분이 완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드디어 구원의 시작자가 되셨다. 우리의 구원에 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거룩함 가운데 일부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주어진 완전함 가운데 있다. 그분의 거룩함에 한 부분에서 된 것도 아니고 그분의 고난에 어떤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가운데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잉태하시고, 그분이 사신 것과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덕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이 완수하신 순종을 행하심과 고난 가운데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구속을 이룬 보증이 된다.⁸¹⁾”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디슨은 우리들의 고난과 비교하면서 설

80) Ibid., pp.76-77.

81) Ibid., pp.78-79.

명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시험을 당하셨는데 아무런 죄도 없이 시험을 당하셨다. 신자들의 몰락하는 경험을 얻게 되었다. 신자들이 자주 타락하는 시험거리는 가난함, 비곤함, 세상이 경멸할 때, 친구로부터 버림을 당할 때, 추방을 당하거나 굶주림을 당하거나, 감시를 당하거나, 피곤하거나, 육체의 고통이나, 마음에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 마음의 무거움, 간사함, 고통이 올 때, 떨어지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다. 이런 경험은 마치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 예수님은 그런 경험을 통하여 이런 모든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되셨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체험이요, 고난들인데 이런 경험들이 주님의 공활을 받게 하는 보증이 되었다.⁸²⁾” 디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정확하게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서 보증이란 말은 성령의 보증, 즉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보증이라는 것이다. 보증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증에 대한 대상으로 충분한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죄인이기에 보증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태는 정말 비참하다. 하나님에 의해 멀리 떨어져 있는 무가치한 존재에게 성령이 보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디슨은 ‘pawns’이란 단어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담보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므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디슨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러하여 우리가 결국 주님의 우리의 아픔에 참여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게 했다. 주님의 고난을 확실하게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의 담보를 주셨다는 것이 그분의 고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동정심까지도 믿도록 하셨다.⁸³⁾”는 것이다. 즉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그 고난당한 상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실 때 고난이 되었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런 동정심(compassion)이 고난(passion)이 되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 자비로운 접촉이 있을 때 느껴지는 것이다.

82) Ibid., p.67.

83) Ibid., p.68.

이런 디슨의 진술은 “비하의 신분이란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적 위엄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태로 인성을 취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최고의 율법수여자이신 그가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⁸⁴⁾을 잘 표현해 주면서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들보다 훨씬 많음과 함께 특출한 성격을 가졌고, 따라서 독특한 것들이었으며, 그의 고난 받은 능력은 그의 이상적 인간성, 윤리적 완전성, 공의, 거룩, 진실에 대한 판단력에 비례하였고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 고통, 비애, 도덕적 사악의 통렬한 아픔을 절감할 수 없을 것⁸⁵⁾을 말해준다. 더욱이 바빙크의 진술처럼 “그는 참된 인간, 곧 육체가 되었고 육체로 오셨으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셨고 완전하고 참된 인간이어서 어린아이로써 자라며 지혜와 키에 있어서도 성장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웠으며, 주리시고, 목마르시며, 슬퍼하고 기뻐하시며 감정을 나타내고 분히 여기셨고 결국 자신을 율법 아래 두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고운 모양도 없고 영화도 없이 무덤에 묻히셨던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와 절고의 사람이었다.⁸⁶⁾”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디슨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조직신학적 개념이 그의 히브리서의 주석을 해석하는데 성경해석의 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는 바이다.

3.3.2.3.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해석하면서 디슨은 그리스도의 3직분 중에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한다. 하지는 그의 조직신학 책에서 “그리스도가 참으로 제사장이셨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입증하라는 물음에 성전과 그 봉사들 그리고 레위기적 제사장직의 전체 의미와 가치는 제사장으로써의 그리스도와 그의 역사에 대한 완전한 전형이었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바울은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입증하고 있다.⁸⁷⁾”고 말한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84) 루이스 벌코프, 『기독교 신학개론』, op. cit., p.200.

85)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하)』, op. cit., pp.571-572.

86) 헤르만 바빙크, 『하나님의 큰 일』, 김영규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pp.304-305.

87) 하지, 『하지 조직신학 제2권』, op. cit., p.201.

제사장이셨는가? 라고 물으면서 성경은 족장의 역사에서 의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심장한 이름들을 가진 왕적인 제사장을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으며(창14:18-20) 또한 갑작스럽게 그를 물러가게 하신다. 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개인으로써의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구전적 역사를 가지셨다. 그러나 왕적인 제사장으로써 그는 언제나 부모 없이, 기원, 계승, 끝이 없이 머물며, 따라서 바울이 말한 대로(히7:3) 미리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영원성의 정확한 모형으로 지음을 받았다.(시 110:4) 그 예언은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라였다.⁸⁸⁾”고 말한다.

이런 대제사장에 대한 개념과 그리스도와 멜기세덱과의 관계를 디슨은 알고 그의 히브리서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다. 디슨은 14절을 직역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로 올라가신 대 제사장을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고백을 굳게 잡아야겠다.⁸⁹⁾”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고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어서 “신자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한 규칙을 주신다. 그러므로 신앙고백을 굳게 잡게 하는데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도리를 잘 고백하는 것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을 진술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을 굳게 잡는다는 말이다.⁹⁰⁾”라고 말한다. 이 말은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을 굳게 잡아야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고백은 우리들에게 일종의 위로라는 것이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위로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주시는 격려는 대 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에게서 신앙고백을 위협하다는 이런 위협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런 모든 위로라는 것은 어떤 도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리스도안에

88) Ibid., p.204.

89) 디슨, op. cit., p.65.

90) Ibid.

서 만나는 도움 조명이다. 그때야 비로써 충분한 것이다. 우리가 비록 예수그리스도를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할 지라도,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⁹¹⁾”고 말한다.

계속해서 덕슨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분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가리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통적인 대제사장과 제사장직분의 진리가 처음으로 발견되는 차이점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구약의 정통적 대제사장은 표면적으로는 그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참대사장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외견상에는 정통적인 대제사장은 외면적으로 백성을 위해 일을 했다면 바로 저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 신약 대제사장의 효과는 하나님과 완벽한 화해이며 둘째는 모든 견고한 축복이며, 셋째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기도이다.⁹²⁾”고 말한다. 덕슨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분에 대하여 큰 대제사장으로 설명하면서 그분으로 인한 안식과 위로와 함께 구약에 제사장의 전형을 넘어서 차이점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대제사장으로써 하나님과의 완벽한 화해와 견고한 축복, 영원한 중보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덕슨은 히브리서 7장에서 6장의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외면적 신자와 참된 신자들에 대한 현상을 비교한 다음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한다.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 덕슨은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와 비교를 통해 전체를 설명해 간다. 덕슨은 “히브리서 사도가 왜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는 결국 멜기세덱이었기 때문이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그래서 이런 멜기세덱은 원형인 그리스도처럼 활동하게 되었다.”⁹³⁾고 말하면서 멜기세덱을 모형으로 원형인 예수그리스도를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다.

덕슨은 1절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히브리서기자가 창세기 14장 18-20절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한 단어도 좀더 선명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멜기세덱이 아브

91) Ibid.

92) Ibid., pp.65-66.

93) Ibid., p.114.

라함에 대해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 준 것을, 그러므로 모형론은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원형이라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기원과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가 거주했던 거주지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⁹⁴⁾는 것이다. 덕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이런 모형과 원형에 대한 특별한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멜기세덱이 그의 나라에서 왕과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그의 나라에서 왕과 제사장이다. 그리스도가 기독교와 기독교를 돌보고 그의 백성들과의 외적인 교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돌보게 되시고 심지어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돌보게 되고, 현재에서만 아니라 내세에서까지도 돌보시는 왕과 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이 모형으로서 아브라함 곧 모든 신자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축복자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원형이신 그리스도도 아브라함의 축복자이며 그래서 모든 신자의 축복자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복의 원천이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축복을 얻게 된다.⁹⁵⁾”고 말한다. 즉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떤 축복도 올 수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축복을 받을 자도, 얻을 자도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덕슨은 2절을 해석함으로써 이런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킨다. “계속해 보면 우리가 비교할 것은 모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십일조에 의해 존경을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의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물을 드림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세상적인 물질을 주님께 드림으로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결국 신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을 유지하는데 이것이 충분한 일이 된다. 이에 감사를 표현하는 아브라함이 드린 의미는 모든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감사의 의무를 가르친다.

또한 모형인 멜기세덱이 해석하자면 ‘의의 왕이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원형이신 그리스도도 의의 왕이시다. 의의 왕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

94) Ibid., pp.114-115.

95) Ibid., pp.115-116.

안에 성품적인 의로움이 있다. 그분이 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신다.(칭의) 예수님은 그의 신자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의로운 성품으로, 위치로 그들을 성화시킴으로서 나아가게 하신다.(성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으로 평강의 왕이다. 그리스도도 그의 신자들에게 평강의 왕이 되신다. 첫째로는 신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서 평강의 왕이 되시고, 둘째로 신자와 신자들 사이에 평강의 양심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을 신자들과 평화롭게 만들었다. 멜기세덱이 첫째로 의의 왕이고, 둘째로 평강의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도 이 순서로 하는 것이다. 첫째로 의의 왕이기에 죄를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의를 주셨다. 이것이 평강의 왕과 이어져서 의의 열매로서 그의 평화를 신자들에게 주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이다. 세상 가운데 있는 의와 평강과 사랑이다.⁹⁶⁾”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덕슨은 멜기세덱과 비교되는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칭의, 성화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하여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성경구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롬14:17)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순서와 질서가 있음을 말한다. 즉 평강이 앞서도 되고 의가 뒤를 서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아니다. 덕슨의 생각에는 매 단어, 문장, 심지어 순서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것 자체가 성령에 영감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성경에서도 그 순서를 말하고 있는데 의가 있기에 평강이 있고 평강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를 전제로 하여 과정으로 평강이 있고 결과로 사랑이 있는 것이다. 의를 이야기 하지 않고 계속 사랑만을 하게 되면 우유부단해서 절인지, 공자인지, 맹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인과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 같은 것이 아니다. 의는 죄의 문제이기에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 기독교의 사랑의 전제인데 동양철학은 죄의 문제를 건들지 않는다. 범죄를 크게 건들이지 않지만 기독교는 의의 문제를 건드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강도 사랑도 없음을 말하는데 이처럼 덕슨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순서까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3절에서 덕슨은 “멜기세덱은 그분 자신도 참 인간이었고 한 도시에 있어서 제 사장이었다. 왕이었다. 그러나 자연적인 것은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게

96) Ibid., pp.116-117.

되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 그가 누구이며 어떻게 생겼으며, 죽었는지 모른다. 단지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는 모험론적인 인물이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그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써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시다.

멜기세덱이 성경적 의미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를 고찰하게 된다면 그분은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남아 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분도 그의 성품과 구별할 수 없고 그분도 제사장으로 영원히 남아 있고 참으로 성취자가 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는 말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에 성품과 직분을 나타낸다.

만약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유사한 모형이라면, 제사장인 직분이 있어서, 그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멜기세덱이 어떤 다른 사람이 자신과 연합되도록 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멜기세덱과 연속선상에 있도록 하지 않을 것처럼, 그분의 제사장직분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도 어떤 사람이 계승하지 않도록 하지 않았다.⁹⁷⁾”라고 말한다. 즉 멜기세덱의 제사장직분이 단회적이고 영구적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분도 단회적이고 영구적이라는 것이다.

덕슨의 이런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한 대제사장의 개념은 바빙크의 글에서 “히브리서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었다. 시편 110편에서 이미 이것이 미리 언급되어 있었다. 즉 메시아는 왕의 권위를 자신과 결합하는 제사장이 되어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히브리서는 이 사상을 좀더 발전시켜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임을 광범위하게 논증하였으니, 이는 그가 동시에 왕이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완전히 의롭고 죄 없는 의의 왕이었고, 영원히 제사장으로 남아 다른 사람에게 의해 결코 대체되지 않았으며 희생을 드리는 자이되, 황소나 염소로 하지 않고 자신의 몸과 피로 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의 백성을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으며, 따라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 평강의 왕이었기 때문이다. 배교의 위협에 처했던 유대적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이로부터 연역된 실제적인 권고는 그

97) Ibid., pp.117-119.

들에게 퇴보할 이유는 전혀 없고, 오히려 앞으로 전진해야 할 소명이 있다는 교훈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제사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만 상징적이고 예표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 곧 백성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⁹⁸⁾”에서 확인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디슨이 기독교론 중심으로 하여 그의 히브리서주석에서 성경해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직신학적인 주제들로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에 디슨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교리적 오류 없이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3.3.3. 교회론 중심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해석하는데 기독교론 중심으로 해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분명, 디슨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히브리서주석 곳곳에서 교회론적인 관점이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디슨의 성경해석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모든 해석의 방법들을 사용하는 포괄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이다.

3.3.3.1. 신구약 시대의 교회개념

디슨은 히브리서 3장에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동등성과 차별성을 말한다. 2절을 설명하기를 “모세가 받았던 직분의 모든 점들을 그리스도께서 받으려는 모든 직분의 점들과 똑같이 적당한 것으로 평가 내린다는 것은 첫째 직분의 문체에 있어서 유사점이 들어난다. 모세의 직분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모든 집에 도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직분은 복음아래서 하나님의 모든 집에 도달한다. 둘째, 둘 다 지명을 받았다.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 지명을 받았고 예수님도 지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제정하시려고 했던 것들을 제정했다. 셋째, 그 일에 성격이 같다. 모세가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집에 관한 충성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충성하셨는데 아버지는 모세와 똑같은

98) 헤르만 바빙크, *op. cit.*, pp.332-333.

방식으로 예수님을 지명했던 분에게 충성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첨가하거나 다 묶거나 쪼개거나 망가뜨리거나 변질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하나님에게 또 하나는 모세에게 생긴다. 하나님이 그의 교회에 주어진 지침이 불충하지 않다는 오류를 저지르게 되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구약시대의 교회에 맡겨진 잘 전해야 할 일들을 잘 안 전해서 불충성한 사람이 되게 하는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비난거리를 만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규례들을 변질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동등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⁹⁹⁾라고 말한다.

모세의 직분과 예수님의 직분을 비교하여 공통점을 지적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이런 관점을 교회론적으로 설명하는데, 구약시대에도 교회의 개념이 있으며 신약시대의 교회와의 동등함과 연속성의 근거로 이런 모세와 예수그리스도의 하나님 집에서 동일한 충성된 직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덕슨의 입장은 벌코프에게 다시금 발견된다. 벌코프는 “교회는 신약 시대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미 존재하였으며, 제도와 경영상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대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¹⁰⁰⁾”고 말한다. 덕슨에게 이런 교회론적인 관점이 있기에 2절을 위와 같이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계속해서 덕슨은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더 앞세워 차별성을 말한다. “그리스도를 모세와 동일하게 비교한 후에 이제는 모세보다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종들보다 대단히 뛰어난 분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바로 평가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난데 마치 그것은 집 지은 자가 자기의 집보다 뛰어난 것과 같다. 집안에 어떤 돌이나 심지어 집 그 자체도 그 집을 지은 건축자의 명예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교회의 어떤 특별한 인물이라도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세, 심지어 보편적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세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위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¹⁰¹⁾” 즉 덕슨은 그리스도의

99) 덕슨, op. cit., pp.39-40.

100)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하)』, op. cit., p.828.

101) 덕슨, op. cit., pp.40-41.

권위가 머리로서 나타난다고 강조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지체보다 더 위대함을 말한다. 즉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그리스도가 교회의 각 지체가 되는 선지자로부터 성도들까지의 모든 교회안의 무리들보다 더 위대한 분임을 주장한다.

이런 덕슨의 입장은 6절을 해석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은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집 맡은 자로서 충성하였으니 그리스도가 집 맡은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다.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아들이로서 그의 집에 대하여 충성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 안에서 사람들 권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영원토록 변개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그것은 주인과 종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차이점과 같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타고났다. 그리스도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 됨에 있다. 아버지로부터의 영원한 출생이기 때문이다.”¹⁰²⁾

3.3.3.2. 교회의 보편성

이제 덕슨은 ‘교회의 보편성’이란 개념을 통해서 더욱 교회론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집을 잘 정리함으로서 진정한 신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신다. 첫째, 구약의 율법아래 있던 것과 복음 아래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한 교회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한 집이기 때문이다. 모든 신자들이 과거에도 지금에도 이 하나님의 집에 살아있는 돌들이다. 한 집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요, 대화를 나누고,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¹⁰³⁾

다른 사람들은 3장을 기독교론으로 봄으로서 보통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를 말한다. 즉 모세와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뛰어난 예수를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래서 현대 주석가들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로써 말하고 있다.

분명 덕슨 자체도 동질성을 먼저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난 분으로 본

102) Ibid., p.42-43.

103) Ibid., p.43.

다. 그러나 덕슨은 이 부분을 교회론적으로 보게 될 때는 다른 부분이 있음을 말한다. 즉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므로 교회 개념을 성전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 그래서 덕슨은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것으로 보아 교회는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만나고 대화하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신구약의 교회가 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후에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에서 “멜기세덱과 제사장으로 있었던 살렘에 있는 교회는 아브라함의 가족과는 관계가 없었다. 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택하여 주셔서 교회를 만드신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가족 안에 그의 교회 안에 일반적인 교회를 유지하시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을 아브라함 외에 가지고 있었다.¹⁰⁴⁾”는 것이라고 말하므로 아브라함의 가족에 속해 있지 않는 살렘의 교회에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넓은 지역에 있었다는 것임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덕슨은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이상에서의 덕슨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보편성’이란 말에는 유해무 교수가 말하는 교회의 보편성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이그나티우스에 의해서 최초로 쓰여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마다 보편적 교회가 있다. 즉 그리스도는 통치하시고 말씀은 보존하시는데 그의 능력은 온 땅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진리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한다. 즉 학문과 정치, 경제와 사회 및 문화 전체가 기독교로 물드는 것이다.”¹⁰⁵⁾

3.3.3.3.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더욱이 덕슨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 부분까지 언급하여 드러낸다. “아브라함과 만남은 복을 잘 행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한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의 모범을 보여 준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장소와 능력에 따라 어

104) Ibid., p.114.

105)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p.557-558.

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살림이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나, 선한 자들을 위해 선행하고 격려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도리이다.¹⁰⁶⁾”라고 말하므로 교회를 속해 있는 신자들이나 성직자들이 항상 사람들을 대접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음을 말하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도덕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모습은 히브리서 7장 2절을 해석하면서 설명하는 “이에 감사를 표현하는 아브라함이 드린 의미는 모든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감사의 의무를 가르친다. 교회를 섬기도록 세움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감사의 의무를 잘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해라. 그들을 존경해라. 자신들의 물질을 드림으로서 그들이 충분히 목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라!¹⁰⁷⁾”라고 디슨은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을 지침으로서 제시한다.

더욱이 목회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를 말한다.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림으로서 멜기세덱보다 뛰어난 것을 인정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더 많이 그리스도의 뛰어난 것을 인정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무언가를 지녔던 것처럼 그분의 경배를 위해서 우리도 적당한 것을 드려야 한다.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도 드려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목회자들의 소명, 직분을 절대로 모멸해서는 안 되고, 멸시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멸하는 것이 되고 만다.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¹⁰⁸⁾” 디슨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처럼 신자들도 그리스도에게 심지어 목회자들에게 드려야 한다. 목회자의 권위를 존경해야 한다.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의 직분이 말씀선포이기에 목회자의 권위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디슨은 수직적 관계보다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분자로서의 존경심으로서 도덕적인 관계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디슨은 그의 히브리서주석에서 구약에 이미 교회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신구약의 교회의 보편성과 함께 실제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제시해 준다. 디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교회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06) Ibid.

107) Ibid., p.116.

108) Ibid., p.119.

결론적으로 덕슨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신학적인 주제들로 설명하는 것은 그의 중요한 성경해석의 방법이 되고 있다. 단순히 문법적인 방법과 시대적 상황을 통한 역사적 해석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사고, 특별히 조직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므로 내용에 있어 더 풍성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교리적인 오류나 편협한 해석이 없는 풍성한 성경적 해석을 제공해 주고 있다.

C. 개혁주의 성경해석의 원리

안명준 교수는 “개혁주의 신학의 최고 절정인 칼빈의 신학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지만, 성경 해석의 거장으로서의 칼빈은 많이 고찰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칼빈이 본문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해석 방법은 오늘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목할 만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칼빈은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해석 원리로서 문법적 - 역사적 방법을 연속선상에서 사용하였으며 독특하게 사용한 성경 해석 방법의 확실한 검증으로 간절한 방법과 용이한 방법을 인정했다.”고 말한다.¹⁰⁹⁾ 여기서 칼빈을 개혁주의 신학의 최고 절정으로 보면서 그의 성경해석에 높은 권위를 두고 있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또한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개혁주의의 신앙고백서로써 손꼽는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말할 수 있다. 필립샤프는 이 고백서가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회의는 16세기의 영국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 회의는 회의가 만들어 내놓은 결정들의 번위나 능력에서 보든지 또한 후대에 끼친 영향면에서 보든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회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도르트 총회는 그 학문적이고 도덕적인 중요성에서는 이 회의와 버금가지만 거의 모든 개혁파 교회들의 대표가 참석했다는 점에서는 이 회의를 능가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문답은 지금도 여전히 영국계 장로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어떤 칼빈주의적 신앙고백서들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¹¹⁰⁾고 말한다.

109) 안명준, 『칼빈의 성경해석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pp.6-8.

더욱이 사상적 배경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화란에서 알미니안주의와 날카로운 대립을 거친 이후의 칼빈주의 체계를 성숙한 학문적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 목적은 어거스틴의 사상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한 채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39개조신조의 교리체계를 보다 철저한 칼빈주의 체계와 세밀한 논리로 표현하려는데 있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 신학적인 역량과 풍성함에서 모든 신조들을 능가하고 있다.¹¹¹⁾”고 말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제시된 덕슨의 성경해석의 방법들을 칼빈의 저작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성경해석 방법들에 비교하여 보고 평가하는 것을 통해 개혁주의 성경해석의 방법이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이다.

1. 칼빈의 저작에서

1.1. 기독교강요에서 -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신복윤 교수는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번역하면서 기독교 강요에 대하여 언급한다. “니콜라스 포프의 파리대학 총장 취임 연설문 사건으로 칼빈은 1534년 1월 방랑의 길에 오르게 되어 마침내 바젤로 오게 되었는데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잔인한 박해를 받는 것을 차마 그대로 볼 수가 없어 붓을 들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사상 가장 유명한 기독교강요가 되었다.¹¹²⁾”고 말한다. 이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1536년 4월 초판, 1539년 8월 새로운 라틴어판, 1543, 1550년판, 그리고 1559년 최종판에 이르게 되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의 성경해석 방법이 나타나 있다.

칼빈은 성경에 대한 단순한 해석학적 원리로서만 아니라 일찍부터 전기독교교리와 기독교철학의 정초 및 바른 생활과 관련하여 오직 성경으로부터 생각하고 말하는 원칙을 말한다. 그래서 성경을 유일한 경건과 삶의 규범이라 고백하였을 때, 성경이 구원의 방도로서 사용되는 것에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110) 필립 샤프, 『신조학』, 박일민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pp.230-231.

111) Ibid., pp.257-258.

112) 칼빈, 『기독교강요(상)』, 김종흡, 이종윤, 신복윤, 한철하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p.17.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서 오직 그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영적인 모든 대적들을 대적하고 이 세상에 그것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을 의미한다.¹¹³⁾

이런 의미가 1539년 판 기독교강요에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세 번째 명령에 대한 해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신과 말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신비에 대하여 아주 경건한 절도를 가지지 않고는 어떤 것도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판단에 있어서 그를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¹¹⁴⁾

이런 면모는 1536년 초판에서도 나타난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판단 속으로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뚫고 들어가려고(인간의 두뇌의 술취한 망상을 통해), 그래서 성경을 짓밟아 놓으려는 것 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¹¹⁵⁾고 하면서 오직 성경을 강조한다.

또한 1559년 최종판에서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독교 강요 최종판 제IV권 10장 입법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의 권위와 법으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이 한 가지 특권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혼의 유일한 지배자로 인정해야 한다. 구하며 멸하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은 동시에 지배자와 재판장과 입법자와 구주를 겸하셨다고 한 이사야의 말과 같다(사33:22).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확보하신 것을 사람에게 이 전하는 것이 불법이란 것을 잘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명령하려고 덤비는 자들의 권한이 일체 말살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¹¹⁶⁾”라고 말한다.

이러한 칼빈의 ‘오직 성경’의 개념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믿음에 관하여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설명할 때 성경의 구절들을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논증해 간다. “틀림없는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볼 때, 그를 통하여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면, 그는 인

113) 김영규, *op. cit.*, pp. 32-33.

114) *Ibid.*, p.40.

115) 칼빈, 『기독교강요(초판)』, 양낙홍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8), p.160.

116) 칼빈, 『기독교강요(하)』,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p.224.

간이 되기 전에 먼저 아들이시었다. 요한도 ‘만물이 말씀을 통해 지어졌다.’고 말하며(요1:3), 그 사도도 ‘아들을 통하여’라 말한다.(히1:2)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두 칭호를 명백히 분리하는데 이는 이런 구분을 반대하는 것은 완고함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무지의 표시라는 것을 보여주려 함이다. 먼저 그가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롬1:1-4)하였다. 여기서 바울이 육신으로 다윗의 아들이라고 구별해서 지칭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육신을 따른 것이 아님을 표명하고자함이 아니겠는가? 다른 곳에서도 그는 말하기를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롬9:5)하였다. 이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씨라 불리우고 있지만, 육신을 넘어서는 세세에 찬양 받을 하나님이라 한 이 선언보다 더 명백한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 줄 것인가?”¹¹⁷⁾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하는 방법은 기독교강요 전반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칼빈이 기독교강요를 쓰면서 성경해석의 방법으로 오직 성경의 개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더욱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어떤 것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것”을 해석학적인 근본원리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칼빈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가져야 할 것을 말한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초판에서 제IV권 기독교인의 자유부분에서 “이것이 인간 정신이 창안해 낸 모든 것을 거부하고(그것이 어떤 두뇌에서 고안된 것이든지 간에), 신자들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들만을 강력히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인간의 법령들을 제거한다는 것이 아니면 달리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한다.¹¹⁸⁾

117) 칼빈, 『기독교강요(초판)』, op. cit., pp.132-133.

118) Ibid., p.345.

칼빈에게 있어서 오직 성경의 원리란 “그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의 각 구절은 그 자체로 충분하고 판명하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이나 탐구의 길을 성경 밖에서 어느 곳에서도 찾지 말고 성경에서 설명하는 지식이외에 다른 지식을 추구하거나 욕망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부터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¹¹⁹⁾

1.2. 신약 주석에서 - 간결하고 용이한 방법

안명준 교수는 그의 석사 논문 “The Methodology of Brevitas and Facilitas as the Hermeneutic Principle of John Calvin”에서 칼빈의 성경해석을 말한다. 그는 “칼빈 이전의 해석학의 방법들에 대해 칼빈이 어떻게 비판했는지, 그 결과 칼빈의 핵심적인 성경 해석학의 원리인 간결하고 용이한 방법론의 구조와 방법론의 구성 요소들을 찾아냈다.”고 말한다.¹²⁰⁾

‘간결하고 용이한 방법’은 칼빈의 성경 해석학의 중심적인 원리로서, 칼빈은 그의 로마서 주석의 헌사에서 처음으로 이 방법을 언급하고 기독교 강요, 설교 그리고 편지에서 재차 이 방법을 언급한다. 그는 헌사에서 그 당시에 그의 친구로서 하이델베르그와 바젤에서 헬라이어 교수였던 시몬 그리네우스와 이 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내가 기억하기를 3년 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에 관하여 친밀한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기쁘게 했고 나 역시 동의하게 한 방법으로서, 해석자의 최고의 정점은 분명하고 간결함에 있다는 것이 우리 둘을 확신시켰습니다.’¹²¹⁾ 이 말속에서 우리는 간결한 방법의 근거를 찾아 낼 수가 있다.

또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방법을 자세히 피력한다. ‘본래 나는 간결성을 사랑한다. 아마도 내가 말을 장황하게 했더라면 나는 간결성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긴 표현의 가르침이 높게 받아들여졌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현재의 저서의 계획은 우리가 가능한 한 간결하게 교리의 단순한 개요를 밝히도록 요구한다.’¹²²⁾

119) 김영규, op. cit., pp.48-49.

120) 안명준, op. cit., pp.3-4.

121) 칼빈, 『성경주석 19』, (서울: 성서원, 1999), p.21.

122) 칼빈, 『영한 기독교강요Ⅲ』, (서울: 성문출판사, 1996), p.305.

결국 안명준 교수는 칼빈의 이런 성경해석학의 원리를 종합하여 진술하기를 “간결한 방법이란 길고 장황하고 거대한 해석을 피하고 가능한 짧고 간략한 방법을 의미하고, 용이한 방법이란 해석의 단순성을 찾으려는 시도로서 해석 시에 애매한 점을 제거시켜 본문의 의미를 알기 쉽게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다.¹²³⁾”라고 말한다.

1.2.1. 간결한 방법론

안명준 교수는 간결한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원리를 말한다. 먼저, 축소성인데 이 원리는 해석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해 성경 해석 시에 수사학자들이 썼던 몇 가지 패턴을 통하여 본문의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때 그 해석의 설명과 내용을 간결하게 하는 것이다.¹²⁴⁾ 그 예로 칼빈의 로마서 주석 1장 4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에서 그는 이 원리를 보여주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본문의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세 독립된 증거들로 찾아낸다. 첫째는 능력, 둘째로 성령의 증거, 셋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다. 그러나 이 세 증거들을 합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싶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하늘의 참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행사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던 것이다.¹²⁵⁾”라고 말한다.

둘째로, 보존성이다. 이 원리는 칼빈이 성경을 해석할 때 원문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문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원문의 단어 그 자체를 근거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수정되고 변형된 어법을 갖고 해석을 할 경우에 원문의 의미가 간결하기보다는 애매모호하게 되기 때문에 원문을 수정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반대했다. 칼빈은 로마서 7:15의 ‘내가 알지 못하노라’라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에라스무스의 ‘시인한다’라는 표현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 표현은 모호할 수 있어서, 나는 안다는 표현으로(원문 그대로) 보존하기를 택한다.” 여기서 칼빈은 보존성의 원리를 사용함으로써 원문에 충실한 해석자임을 보여준다.¹²⁶⁾

123) 안명준, *op. cit.*, pp.63-64.

124) *Ibid.*, p.68.

125) 칼빈, 『성경주석 19』, *op. cit.*, p.38.

셋째로 관계성이다. 관계성이란 성경을 해석할 때 본문과 관련된 주제에만 제한을 두고, 본문과 무관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해석의 방향을 단절시키며, 그런 주제로 인해 자신의 해석이 본문의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는 방법이다. 칼빈의 해석이 간단명료하고 논리적인 것은 그가 늘 본문의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았고, 그 결과 본문의 주제를 떠나서 방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칼빈은 다른 해석자들이 본문의 중심에서 이탈한 점을 자주 지적한다. 칼빈은 갈라디아서 1: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에서 다른 주석가들이 본문과의 관계성을 보여주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¹²⁷⁾ 이 구절은 헬라어의 구문이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사람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입니까?’라고 해석하며,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을 ‘신적 표준’과 ‘인간의 표준’이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이 해석이 원문 말씀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았다면 문맥상으로는 매우 어울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을 따르고 싶은데, 다시 말하면 헬라어에서는 ‘...에 의하여’에 해당하는 전치사 카타(κατα)를 보충하여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설교의 주제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의도, 곧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 관해서이다.”¹²⁸⁾

1.2.2. 용이한 방법론

용이한 방법론이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애매모호함을 피하고 단순성 혹은 쉽게 이해되는 것을 찾으려는 것이다. 칼빈이 이런 단순성을 구성하고 있는 용이한 해석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로마서주석에 있는 헌사와 시편 주석에서 밝혔듯이 독자들을 돕는 것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주석은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실제적인 주석으로 쓰여지게 되었다.

첫째는 반 강요성이다. 칼빈이 제일 싫어하는 해석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의미를 강요하거나 혹은 왜곡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칼빈은 고린도후서 3장 6

126) 안명준, op. cit., pp.75-77.

127) Ibid., pp.79-80.

128) 칼빈, 『성경주석 19』, op. cit., p.511.

절을 주석하면서 “의문은 죽은 것이요”라는 본문을 알레고리 방법으로 왜곡시켰다고 비판했다.¹²⁹⁾ “이 구절은 먼저 오리겐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곡해되어 오고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성경이 풍자적으로 해석되지 않을 경우 그것이 쓸모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해롭다는 덧없이 흉측한 오류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 오류가 많은 악의 근원이 되어 오고 있다. 그것은 성경의 자연스러운 의미를 곡해하는 길을 열어 제쳐놓았을 뿐 아니라 뻔뻔스럽게 풍자화 하는 것을 해석의 으뜸가는 원리로 세워놓고 말았다. 그러기에 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절제하게 하나님의 성스러운 말씀을 가지고 마치 공을 이리저리 던지는 식으로 온갖 종류의 놀이를 했었다.”¹³⁰⁾

둘째는 반 모호성이다. 이 원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는 애매모호함을 제거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단순하고 명료한 해설을 주는 것이다. 칼빈은 애매한 해석은 성경의 참된 의미를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자들을 혼동시킨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칼빈은 애매모호함에 반대하여 용이한 방법론을 항상 사용한다.¹³¹⁾ 예를 들면 칼빈은 로마서 8장 23절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를 주석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primitias)라는 단어를 진귀하고 두드러지게 뛰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나 나로서는 그 같은 해석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호한 표현을 피하기 위하여, 그 단어를 ‘처음 시작하는 것들’(primordia)로 번역하였다. 앞서 말한 주석가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을 사도들에게만 적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또 몇 방울의 성령으로라도 뿌림을 받은 일이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된 것으로 생각한다.”¹³²⁾고 말한다.

셋째는 반 억측성이다. 이 원리는 주관적인 상상력이나 부정확한 추측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해석은 건전한 해석 방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의 참된 의미를 밝혀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에라스무스가 정확한 해석 방법론을 무시하고 경솔하게 추측하여 성

129) 안명준, *op. cit.*, pp.83-85.

130) 칼빈, 『성경주석 20』, (서울: 성서원, 1999), p.79.

131) 안명준, *op. cit.*, p.91.

132) 칼빈, 『성경주석 19』, *op. cit.*, p.259.

경을 해석하는 것을 비판한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32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에라스무스의 억측성을 지적한다. “에라스무스가 실수하여 억측한 해석은 맹수와 싸운 사람은 맹수에게 (잡혀 먹도록) 던져진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도록 유죄 선고를 받은 자들이다.” 칼빈은 에라스무스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한 이유가 바울이 말한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이란 표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바울 당시 에베소 지방의 사회적 풍습을 잘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경 해석자가 잠시라도 정확한 방법론에 근거하지 않고 본문을 다룬다면 자기의 사상의 날개를 타고 성경의 저자가 의도한 것과 전혀 동떨어진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칼빈은 해석자가 이런 잘못된 상상력 때문에 참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¹³³⁾

넷째로, 단순성이다. 용이한 방법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단순성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할 때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이 단순성의 원리는 애매모호성, 왜곡성, 억측성에 반작용한다.¹³⁴⁾ 칼빈은 로마서 2장 24절을 주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해석이 더 단순한 해석이라고 말한다. “나는 이 해석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더 간단하게 해석하고 싶다.”¹³⁵⁾ 더욱이 로마서 6:5절을 주석하면서 표현의 단순성을 주장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접붙임을 받으며, 그의 죽음이 그의 부활과 불가분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죽음 또한 우리의 부활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히 그를 본받아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이다. 첫 번째 해석대로라면, 헬라어 ο'μοιώματι가 우리를 접붙이는 수단을 나타내는 수단의 여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는 이 말이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번째 해석이 표현의 간결성에 보다 더 적합하기 때

133) 안명준, op. cit., pp.93-95.

134) Ibid., pp.96-97.

135) 칼빈, 『성경주석 19』, op. cit., p.90.

문에, 나는 그 의미를 사용하는 편을 택하여 왔다. 그러나 두 해석 모두 결국 같은 것이 되므로 별다른 차이는 없다.¹³⁶⁾”라고 말하면서 독자를 위하여 해석이 되도록 단순하게 사용하기를 바랐다.

결국 칼빈의 신약주석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해석학의 원리로서 간결하고 용이한 방법을 보게 된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본문을 왜곡하지 않고 건전한 성경 해석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런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주장을 가지고 본문을 다루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성경의 해석이 교회와 독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기 위해서 바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본문을 해석하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신약 주석을 통해 두 가지 성경 해석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기독교 강요에서는 내용상의 방법론으로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며, 둘째 신약 주석에서는 형식상의 방법론으로 간결하고 용이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항에 보면 성경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과거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그의 교회에 자기 자신과 그 뜻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후에 그 계시된 진리를 전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심이 또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 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라고 정의한다.¹³⁷⁾ 더욱이 제1장 4항에서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권위의 성립은 어떠한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로 말미암아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 저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말한다.¹³⁸⁾

이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실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¹³⁹⁾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식한 자든지 무식한 자든지 평범한 지각을 적절히 사용해도 그 진리들을 만족히 알 만

136) Ibid., p.187.

137) 박윤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울: 영음사, 1989), p.11.

138) Ibid., p.13.

139) Ibid.

한 것”¹⁴⁰⁾이 바로 성경이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성경에 대한 해석의 방법상의 원리를 명확하게 두 가지 제시한다.

2.1.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9항에서 “성경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주절의 참되고 온전한 뜻(여럿이 아니고 하나뿐임)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뜻을 더 명백히 나타내는 다른 성구로서 밝혀야 한다.¹⁴¹⁾”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나용화 교수는 해설하기를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얼핏 보아 해석하기 곤란한 성경 구절은 다른 구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경우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예컨대 요한계시록 20:1-6의 ‘천년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32-33; 요한복음 5:25-29; 사도행전 24:15; 고린도전서 15:21-24, 51-52,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16-18등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좋다. 즉 요한계시록 20:1-6만을 보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사이에 문자적으로 천년기가 지상에 있을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나, 복음서와 서신들의 여러 구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동시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천년기를 지상에서의 문자적 천년기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이다.¹⁴²⁾”라고 말한다.

2.2. 성령의 조명을 전제로 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0항에서 “모든 종교적 논쟁이나 모든 회의 결론이나 옛날 성경 해석자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교훈이나 영들을 검토하여 시험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그의 판결에는 누구든지 순종해야 한다¹⁴³⁾”라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나용화 교수는 해

140) Ibid., p.14.

141) Ibid., p.16.

142) 나용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pp.22-23.

설하기를 “종교적 또는 교리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즉,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이나 주교회의 또는 여타의 교회 회의가 결코 최고의 재판관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의 회의나 학설 또는 신조들도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에 의해 항상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경우. 본래 20장 4항, 23장 3항, 그리고 31장 1,2항에는 세속정부의 위정자들에게 교회 회의를 소집하고 교리를 확정하는 데 깊이 관여 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나중에 조항들이 지금의 장로교회 헌법에 수록된 대로 성경적으로 수정된 바 있다.¹⁴⁴⁾”라고 말한다.

이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밝히고 있는 성경해석의 원리로서 첫째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둘째가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3. 평가

딤편의 성경해석의 방법을 통해 개혁주의 성경해석의 원리를 찾겠다고 할 때, 칼빈의 저작들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성경해석의 원리들에 대한 원칙을 세울 수 있다.

먼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딤편뿐만 아니라, 칼빈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동일한 방법이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성경 자체가 성경을 풀이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는 생각으로 다른 성경을 통하여 지금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딤편의 히브리서 주석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나타나며, 칼빈 또한 기독교강요에서 설명을 하였고, 그의 신약 주석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다. 즉 딤편이나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이 되면서 분명하게 많이 사용되었던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확증해

143) 박윤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op. cit. p.17.

144) 나용화, op. cit., pp.23-24.

주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개혁주의 성경해석으로써 가장 핵심의 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을 가장 중심의 해석 원리로 삼으면서도 덕슨은 문법적 해석이나 신학적인 주제로서의 성경해석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본문에 대한 더 풍성한 의미를 찾았다. 특별히 성경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조직신학적인 개념들을 큰 틀로 하여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교리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칼빈에게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전제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을 인정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표현처럼 성령의 조명을 전제로 할 때 위에서 말한 성경해석의 방법들이 의미가 있다. 이는 성령의 조명만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덕슨이나 칼빈도 이런 성령의 조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를 그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주석작업을 하였음을 틀림없다.

III.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덕슨이라는 17세기 스코틀랜드의 한 신학자가 히브리서를 어떻게 주석하면서 성경을 해석 했는지를 통해 성경해석의 중요한 원리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을 가장 핵심의 원리로서 삼아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인간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서 성경 해석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라고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어떤 오류가 개입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히는 방식으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덕슨은 바로 이런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가장 중심의 성경해석의 원리로 삼았고, 개혁주의 신학의 최고봉인 칼빈 또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기독교강요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주석에서 사용하였다. 더욱이 개혁주의 교회가 가장 멀리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을 성경해석의 방법으로 고백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을 이어가는 자라면 이 방법을 취함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덕슨을 통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이런 대표적인 원리와 함께 다른 정상적인 원리들을 어느 정도 상호보완 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핵심원리로 취하면서 문법적 해석이나,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고려하며 때로는 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덕슨은 한 단어를 집중하여 그 단어를 통해 본문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성경해석을 하기도 하였고, 또는 구절과 구절, 단어와 단어를 비교 대조함으로써 그 안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어 본문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직신학적인 주제인 신론, 기독교론, 교회론 중심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신분과 사역이

란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한다. 그리고 교회론적인 입장까지 생각하여 성경을 보는 모습이 보여졌다. 그러므로 교리적인 오류가 없는 이런 종합적이고 다양한 정상적인 원리들과 함께 성경을 해석하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좋은 유산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의 진리는 ‘그 자체로부터 진리이다’는 사실이다. 그 진리성이 진리 자체인 하나님 이외에 어떤 길로도 보충되거나 감해지는 것이 없으며 비록 우리가 그 진리성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요3:19) 인간들이기에 우리 스스로 그 진리를 소유 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다”(요8:47) 말씀을 생각할 때, 결국 성경의 참된 해석과 이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본 저자로 말미암은 조명이 있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런 전제하에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듣는 이에게 전달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며 오직 성경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자신을 시험하는 사탄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명심해야 하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4:4)

참 고 문 헌 (Bibliography)

I. 1차 자료

Dickson, 『A Short EXPLANATION, Of the Epistle of Paul to the Hebrewes』, Aberdeen:Edw. Raban, 1635,

II. 2차 자료

1. 국내서적

- 김영규, 『조직신학편람1』, 서울:개혁주의 성경연구소, 1999.
김창인, 『칭찬듣는 교회』, 서울:충현교회 출판부, 1984.
김홍전, 『기도에 대하여』, 서울:성약출판사, 1999.
나용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류호준, 『히브리서』,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박윤선, 『성경신학』, 서울:영음사, 1971.
_____,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서울:영음사, 1989.
안명준, 『칼빈의 성경해석학』,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오병세,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6.
이종윤, 『신약개론』,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88.
홍치모,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영국혁명』, 서울:총신대학교출판사, 1991.

2. 번역서적

- 그레이다누스, 김영철 역,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상)』, 서울:여수론 1995.
거쓰리 도날드, 나용화, 박영호 공역, 『신약개론』,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 벌코프 루이스, 권수경, 이상원 공역, 『조직신학 상』,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_____, 권수경, 이상원 공역, 『조직신학 하』,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_____, 신복윤 역, 『기독교 신학개론』, 서울:성광문화사, 1974.
- _____, 윤종호, 송중섭 역, 『성경해석학』,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65.
- 램 버나드, 권혁봉 역, 『성경해석학』, 서울:생명의 말씀사, 1974.
- 버클레이, 미켈슨, 원세호 역, 『기초 성경 해석학』,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88.
- 러더퍼드 사무엘, 이강호 역, 『재무엘 러더퍼드 서한집』,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 클라인 윌리엄, 크레그 블룸버그, 로버트 하버드 공저, 류호영 역, 『성경해석학총론』,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7.
- 칼빈 존,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공역, 『기독교강요(최종판)』,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8.
- _____, 양낙홍 역, 『기독교강요 초판』,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8.
- _____, 성문출판사 편집주 역, 『영한 기독교강요Ⅲ』, 서울:성문출판사, 1996.
- 샤프 필립, 박일민 역, 『신조학』,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 바빙크 헤르만, 김영규 역, 『하나님의 큰일』,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A. 하지, 고영민 역, 『하지조직신학 제1권』, 서울:기독교문사, 1981.
- _____, 고영민 역, 『하지조직신학 제2권』, 서울:기독교문사, 1981.
- A.M. 렌위크, A.M. 하만, 오창윤 역, 『간추린 교회사』, 서울:생명의 말씀사, 1979.
- D. 스투워드, 김의원 역, 『성경해석 방법론』,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 D. A. 카슨, 더글라스 J. 무, 레온 모리스 공저, 『신약개론』, 서울:은성출판사, 1993.

G. D. Henderson, 이은선, 홍치모 공역, 『스코틀랜드 교회사』, 서울:한국로고스연구원, 1991.

J. 하틸, 에디윈, 이주영 역, 『성경해석학의 원리』, 서울:성광문화사, 1986.

3. 논문자료

김영우, “성경해석에 있어서의 전제사용의 의의와 한계”,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9.

함윤길, “개혁자들의 성경해석 원리와 실제에 관한 한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정지수,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에 나타난 성경해석론과 현 시대를 위한 실천적 의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4. 주석류

박윤선, 『성경주석 : 계시록주석』, 서울:영음사, 1981.

_____, 『성경주석 : 히브리서, 공동서신』, 서울:영음사, 1956.

존브라운, 『헨드릭슨 패턴 주석 : 히브리서 상』, 서울:아가페문화사, 1985.

칼빈,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역, 『성경주석19: 로마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서울:성서원, 1999.

_____,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역, 『성경주석20: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후서, 히브리서, 베드로전후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서울:성서원, 1999.

5. 사전류

한영제, 『기독교 대백과사전4』, 서울:기독교문서, 1981.